

『歷代明鑑』의 撰集樣相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Types of Compilation of the *Yeokdaemyeonggam*

朴文烈 (Park, Moon-Year)*

◁ 목 차 ▷

1. 緒言	4.3 '刪其繁蕪'의 類型
2. 『歷代明鑑』 撰集의 過程	4.4 '去其全條'의 類型
3. 『歷代明鑑』의 收錄人物의 範圍	4.5 '添入新段'의 類型
4. 『歷代明鑑』의 撰集樣相	5. 結 論
4.1 '轉載'의 類型	<참고문헌>
4.2 '撮其切要'의 類型	

< 초 록 >

본 研究는 『歷代明鑑』에 收錄된 人物의 選取類型과 『歷代明鑑』 卷4에 나타나는 類型別 撰集樣相을 중심으로 하여 『歷代明鑑』의 撰集樣相의 全般에 관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歷代明鑑』은 洪貴達과 權健 및 成倪 등이 王命을 받들어 撰集한 道합 27권 巨帙의 鑑戒書이다.
- (2) 『歷代明鑑』에는 <君鑑>에 77인, <后妃鑑>에 44인, <臣鑑>에 199인 등 道합 320人物이 底本으로부터 轉載·除去되거나 原典인 本史로부터의 添入으로 選取·收錄된 것이다.
- (3) 『歷代明鑑』의 收錄人物은 底本으로부터 <君鑑>의 경우 '善可爲法'에는 13인이 除去되었으며, '惡可爲戒'에는 2인이 除去되고 3인이 添入되었으며, <臣鑑>의 경우 '善可爲法'에는 89인이 除去되고 9인이 添入되었으며, '惡可爲戒'에서는 34인이 除去되고 18인이 添入되어 <君鑑>과 <臣鑑>의 兩鑑에 걸쳐 道합 138인이 除去되고 30인이 添入되었다. <后妃鑑>의 경우 除去나 添入이 없이 모든 人物이 그대로 轉載되고 있어, 이는 아마도 底本인 『帝王后妃明鑑』이 朝鮮의 撰集인 關係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한다.
- (4) 『歷代明鑑』 권4에 수록된 3朝 10人 88條目的 撰集樣相은 33條目的 '轉載', 24條目的 '撮其切要', 29條目的 '刪其繁蕪', 1人物 17條目的 '去其全條', 1條目的 '添入新段' 등의 方法이 사용되었다.
- (5) 『歷代明鑑』에 수록된 人物의 選取와 『歷代明鑑』 卷4에 수록된 類型別 撰集樣相 등을 통하여 볼 때, 『歷代明鑑』은 人物의 選取에서부터 人物別 鑑戒의 內容에 이르기까지 朝鮮의 實情에 맞도록 釐正·重撰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要語: 『歷代明鑑』, 撰集樣相, 洪貴達, 權健, 成倪, 『歷代君鑑』, 『歷代臣鑑』, 『帝王后妃明鑑』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7년 8월 8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types of compilation of the *Yeokdaemyeonggam*(歷代明鑑) from the types of selected person and types of compilation based on the *Yeokdaemyeonggam* volume 4.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Yeokdaemyeonggam* is a Gamgyeseo(鑑戒書) that consists of 27 volumes compiled by Hong Gwi Dal(洪貴達), Gwon Geon(權健), and Seong Hyeon(成俔) under the king's order. Gamgyeyoso is a type of record book containing exemplary words and behaviors of selected persons from the Chinese and Joseon dynasties. The purpose of this book is to educate our sovereigns and loyal retainers.

(2) The *Yeokdaemyeonggam* contains the records of 320 historic figures. Of the total of 320 figures, Gungam(君鑑) contains records of 77 figures, Hubigam(后妃鑑) contains records of 44 figures, and Singam(臣鑑) contains records of 199 figures. Some of the records were reproduced from their source texts, while some records of the source texts were removed and some texts were added to the original texts.

(3) Compared with the source texts, in Gungam, 13 figures were removed in the section "Good Manners(善可爲法)," while 2 figures were removed and 3 figures were added in the section "Bad Manners(惡可爲戒)." In Singam, 89 figures were removed and 9 figures were added in the section "Good Manners," while 34 figures were removed, and 18 figures were added in the section "Bad Manners." In Gungam and Singam, a total of 138 figures were removed, and 30 figures were added. Hubigam contains the records of all figures included in the source text without any removal or addition, presumably because its source text, *Jewanghubimyeonggam*, was compiled by the Joseon Dynasty.

(4) As for the compilation style of the 88 subsections on 10 figures in 3 dynasties, 33 subsections reproduced the source materials, 24 subsections summarized the main points of the source materials(撮其切要), 29 subsections abbreviated the source materials by removing parts that are not critical(刪其繁蕪), 17 subsections withdrew sentences from the source materials(去其全條), and 1 subsection added new sentences to the source material(添入新段).

(5) By looking into the selection of figures included in the *Yeokdaemyeonggam* as well as the compilation styles for its Volume 4, it can be inferred that the *Yeokdaemyeonggam* was modified and compiled so as to bring them in congruence with the realities of the Joseon Dynasty, from the selection of figures to the contents of the lessons with regard to the figures included.

Key words: *Yeokdaemyeonggam*(歷代明鑑), aspect of compilation(撰集樣相), Hong Gwi Dal(洪貴達), Gwon Geon(權健), Seong Hyeon(成俔), *Yeokdaegungam*(歷代君鑑), *Yeokdaesingam*(歷代臣鑑), *Jewanghubimyeonggam*(帝王后妃明鑑)

1. 緒言

「歷代明鑑」은 연산군 5년(1499) 12월에 洪貴達(1438-1504)과 權健(1458-1501) 및 成倪(1439-1504) 등에게 역대의 君臣 중에서 善惡이 현저하여 勸戒가 될 만한 인물들을 部類別로 撰集하여 進達하라는 王命이 下達되면서 시작되었다.¹⁾²⁾

「歷代明鑑」은 王命을 받은 洪貴達과 權健 및 成倪 등이 연산군 5년(1499) 12월 1일(병술)부터 연산군 6년(1500) 정월 21일(병자) 사이에 도합 27권으로 撰集을 완료하고 弘文館 官員들의 讎校를 거쳐³⁾ 동년(1500) 7월 28일(경진)에 進奉한 鑑戒書이다.⁴⁾

洪貴達·權健·成倪 등의 撰集者들이 2개월도 걸리지 않은 기간에 무려 27권의 巨帙인 「歷代明鑑」을 撰集할 수 있었던 것은 中朝 撰集의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本朝 撰集의 「帝王后妃明鑑」 등을 底本으로 重撰되었던 때문인 듯하다.

洪貴達의 <歷代明鑑序>⁵⁾에 의하면, 撰集者들은 「歷代明鑑」을 撰集하는 과정에서 中朝 撰述의 「歷代君鑑」⁶⁾과 「歷代臣鑑」⁷⁾ 및 本朝 撰述의 「帝王后妃明鑑」⁸⁾ 등의 底本으로부터 ① 轉載, ② 撮其切要, ③ 刪其繁蕪, ④ 去其全條 등의 방법도 사용되고 나아가 ⑤ 添入新段의 방법까지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歷代明鑑」에 관한 研究>⁹⁾의 後稿로 燕山君朝 刊行의 「歷代明鑑」 卷4를 중심으로 中朝 刊行의 「歷代君鑑」과의 對比를 통하여 「歷代明鑑」 全般의 撰集樣相에 관하여 考究하고자 한다.

- 1) 朴文烈,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歷代明鑑」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70輯(2017. 6), 39-64.
- 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燕山君 5年 12月 1(丙戌)日條. “傳于大提學洪貴達曰 … 人臣有節義者固鮮 至於帝王后妃 亦有賢否 卿其類編爲一帙 以便觀覽 貴達啓 帝王及后妃既有明鑑 當更增損 但臣之賢否 未有編集 當編進.”
- 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1月 21(丙子)日條. “弘文館副提學洪洞等啓 印出明鑑 既命弘文館員讎校 又命任士洪同監 ….”
- 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6年 7月 28(庚辰)日條. “工曹判書成倪·知中樞府事洪貴達·兵曹參判權健撰進歷代明鑑.”
- 5)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4.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序]. <大邱가톨릭大學校中央圖書館所藏本>.
- 6) 代宗 御撰, 『歷代君鑑』.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景泰 4(1453) 序].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 7) 宣宗 御撰, 『歷代臣鑑』.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德 1(1426) 序]. <奎章閣所藏本>.
- 8) 「帝王后妃明鑑」은 朝鮮 成宗朝에 太虛亭 崔恒(1409-1474)과 佔畢齋 金宗直(1431-1492) 등에 의하여 撰集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傳存하지 않아 정확한 收錄範圍나 內容을 알 수 없다. 「帝王后妃明鑑」은 <帝王明鑑(上)>·<帝王明鑑(下)>·<后妃明鑑>의 3篇으로 構成되어 <帝王明鑑>의 上篇은 堯舜으로부터 大明皇帝까지, 下篇은 桀紂에서부터 宋徽宗에 이르기까지를 收錄範圍로 撰集되었던 듯하다. 「帝王后妃明鑑」에 관하여는 別稿에서 考究하고자 한다.
- 9)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序]. 卷頭. ‘歷代明鑑序’條.

2. 「歷代明鑑」撰集의 過程

「歷代明鑑」은 연산군 5년(1499)에 역대의 君臣 중에서 善惡이 현저하여 勸戒가 될 만한 인물들을 部類別로 撰集하여 進達하라는 왕명에 따라, 洪貴達과 權健 및 成倪 등이 동년(1499) 12월 1일(병술)부터 이듬해(1500) 정월 21일(병자) 사이에 도합 27권으로 찬집한 鑑戒書이다.

「歷代明鑑」의 撰集背景과 전후의 事情에 관하여는 「歷代明鑑」의 卷頭に 수록된 洪貴達의 <歷代明鑑序>에 잘 나타나고 있다.¹⁰⁾

… [1] 弘治 12년(1449, 연산군 5) 겨울 12월 [1, 병술]일¹¹⁾에 [2] 공조판서 신 成倪과 병조참판 신 權健 및 신 洪貴達을 특별히 부르시어 [3] ‘역대의 君臣 중에 法戒가 될 만한 인물이 적지 않으나 모두 史籍에 산견되어 마음과 눈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음을 내가 심히 병통으로 여기니, 그들 중에서 善惡이 현저하여 勸戒될 만한 인물들을 부류별로 찬집하여 진상하라!’고 하명하셨습니다. 신들이 하명을 받들고 물러나 [4] 中朝에서 찬집된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우리 조선에서 찬집된 「帝王后妃明鑑」 등을 찾아내고, ‘이러한 서적들이 있어 별도로 찬집하지 않아도 될 듯하옵니다. 다만 [5] 그 중 어떤 인물은 별로 勸戒에 관계되지 않은 인물도 있고 [6] 현저하여 勸戒가 될 만한데도 脫漏된 인물도 있으며 [7] 또한 문장이 번잡하고 연사가 막혀 모름지기 筆削해야 할 인물도 있을 듯하여, 그대로 용납하기는 어려울 듯하옵니다.’고 啓聞하자, [8] ‘그대들이 다시금 찬집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이에 [9] 신들이 앞서 열거한 몇 가지 서적을 바탕으로 [10] 역대의 本史를 참고하여 [11] 그 切要를 撮錄하고 [12] 繁蕪를 刪削하며 [13] 혹은 전체의 조목을 刪去하고 [14] 혹은 새로운 文段을 첨입시키는 등 [15] 切要가 勸戒될 만한 인물들만으로 [16] 27권으로 釐正하여 [17] 그 이름을 「歷代明鑑」이라 하였사오는데, [18] 奉進을 마치자 신에게 그 ‘序’를 짓도록 하명하셨습니다. …¹²⁾

10) 引用文의 「」 속의 번호는 筆者가 敘述의 便宜를 위하여 添入한 것이다.

1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5年 12月 1(丙戌)日條.

“傳于大提學洪貴達曰 通鑑有小微 資治綱目亦足以觀 但今日觀帝類中三矢之語 人臣有節義者固鮮 至於帝王后妃 亦有賢否 卿其類編爲一帙 以便觀覽 貴達啓 帝王及后妃既有明鑑 當更增損 但臣之賢否 未有編集當編進.”

12)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序]. 卷頭. 「歷代明鑑序」條.

“聖上 嗣守丕基 念惟帝王澄心出治之要 歷代治亂興亡之迹 具于經史 乃首開經筵 孜孜臨御 凡所以修己治人之道 靡不講究 古昔明君誼辟 所以開廣聰明 增益智慮 圖臻至治者 率用是道 豈不甚善也哉 奧 弘治十二年冬十有二月日 命召工曹判書臣成倪 兵曹參判臣權健 暨臣貴達 若曰歷代君臣 可法可戒者多矣 然皆散見諸史 心目有所不逮 予甚病焉 其類撰善惡之堪爲勸戒者 以進 臣等聞命而退 搜得皇朝出來歷代君臣鑑 與夫本朝所撰帝王后妃明鑑 啓曰有是焉 雖無別撰可也 但其中 或有不甚關於勸戒者 亦有堪爲勸戒而脫漏者 且有文繁語滯 須[宜]加筆削者 是則不容已也 教曰汝其更撰 臣等將前項數[-]本 參考歷代本史 撮其切要刪其繁蕪 或去其全條 或添入新段 要爲勸戒而止 釐爲二十七卷 名之曰歷代明鑑 既奉進 命臣序之 臣竊惟古者今之鑑 前者後之規 善吾師也 惡亦吾師也 殷鑑在夏后之世 周之所當鑑者 亦不在乎他 殷周之子孫 若能世世鑑之 則其歷年當不止六百八百而已 繼周者秦 秦不足道也 漢不鑑秦 晉不鑑漢 以迄于宋元 覆轍相尋而莫之悟 吁可悲也已 傳曰欲爲君盡君道 欲爲臣盡臣道 言君臣當各盡其道也 易曰家人正而天下定 言家者國與天下之本也 苟能內外上下以古爲鑑 見善從之 聞惡而懲 交相戒敕 各盡其道 則古今天下 安有覆車之轍乎 殿下臨政願治 七年于茲 治已隆矣 而猶不自滿 方且事必師古 期底于唐虞三代之盛 所謂與治同道者 其斯之謂歟 雖然人心慘[操]舍之無常 善始者未必有終 可不懼哉 昔宋太宗 詔修太平御覽等書 日覽二[三]卷 若因事或廢 則暇日追補日 開卷有益 朕不爲勞 自古有爲之君 其求道之急如此 臣等所撰 豈足仰塵睿覽 然其事則未必無補於勸懲 伏願聖上 服太宗日覽追補之勤 念茲在茲 見其善者而思齊焉 於不善則去之 至令宮壺之深 臣僚之衆 莫不有所觀感 而各自修省 則豈

이상의 <歷代明鑑序>의 내용을 분석하면, 撰集을 下命한 年月日([1]), 撰集者의 構成([2]), 撰集의 目的([3]·[8]), 撰集用 底本([4]·[9]·[10]), 收錄人物의 選取와 範圍([5: 刪去]·[6: 添入]), 收錄人物別 文章의 釐正([7]·[11]·[12]·[13]·[14]), 撰集書의 範圍와 卷數([15]·[16]), 撰集書의 題名([17]), 撰集書의 奉進([18]) 등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편, 「歷代明鑑」의 卷末에 수록된 成倪의 <歷代明鑑跋>에도 “… 明朝 宣德年間(1426-1435)에 「臣鑑」을 撰集하고 景泰年間(1450-1456)에 「君鑑」을 撰集하였으니, 모두 翰林의 儒臣들에게 하명하여 唐·虞朝부터 明朝까지 당시의 善惡이 잘 갖추어져 드러나도록 撰集되었던 것이다. 우리 成宗康靖大王께서도 「帝王后妃明鑑」을 撰集토록 下命하셨으니, 거기에는 모두 깊은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또한 宣德年間과 景泰年間에는 ‘后妃’까지는 찬집되지 못하고 成廟朝에는 ‘臣道’가 遺漏되었으나, 지금 그 體制를 모방하되 文章의 내용만은 增損시켜 三鑑을 합하여 1질로 편성하고 그 이름을 「歷代明鑑」이라 하였다…”¹³⁾고 하여, 「歷代明鑑」이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帝王后妃明鑑」의 體制를 모방하되 文章의 내용만은 增損시켜 撰集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歷代明鑑」의 撰集에는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帝王后妃明鑑」 등을 底本으로 歷代의 本史를 참고하여 (1) 收錄對象의 人物을 ① 轉載하거나 ② 除去하거나 ③ 添入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였으며, (2) 收錄對象의 人物別로 底本을 바탕으로 ① 轉載하거나 ② 그 切要를 撮錄하거나 ③ 繁蕪를 刪削하거나 ④ 혹은 전체의 條目을 刪去하거나 ⑤ 혹은 새로운 文段을 添入시키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3. 「歷代明鑑」의 收錄人物의 範圍

「歷代明鑑」은 <君鑑>과 <后妃鑑> 및 <臣鑑> 등의 三鑑으로 구성된 도합 27권의 巨帙이다. 洪貴達의 <歷代明鑑序>에 의하면, 「歷代明鑑」에 수록된 인물은 中朝의 「歷代君鑑」과 「歷代臣

不有裨於治道萬萬哉 子孫世世 亦能踵而不替 則我東方億萬年生民之福 可勝道哉 正憲大夫 知中樞府事 兼知春秋館事 知義禁府事 臣洪貴達 謹序 [臣謹序]” <[] 속은 「虛白亭文集」에 收錄된 文章과의 對校임>.

- 13)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序]. 卷末. 「歷代明鑑跋」條.
 “我殿下 踐祚之六載已未冬十二月日 命知中樞府事臣洪貴達 兵曹參判臣權健 暨臣倪 撰古之君臣與后妃行事之跡 爲今之可法可戒者 用以爲鑑 噫 爲國之道 豈有過於此者也[乎] 夫[使]君而不鑑乎古 則或誤於施措之宜 臣而不鑑乎古 則實昧於忠詐之分 至於妃主之陰助 寔[實]贊乾道之化育 則其可不鑑古爲重乎 此所以三鑑之成于今日也[此三鑑之所以成乎今日也] 大明宣德年間撰臣鑑 景泰年間撰君鑑 皆命翰林儒臣 輯自唐虞 至于國朝 其當時善惡備著 我[-]成宗康靖大王 亦令撰帝王后妃明鑑 皆有所深意存焉 而[-]宣德景泰則靡及於后妃 成廟則亦遺於臣道 今則雖倣其規 而[-]增損其文 合三鑑爲一帙 名之曰歷代明鑑 吁 其光於前聖者固多 而所謂其規則一也 將見我東方舜文御世 [而]變高周召爲之佐 宮壺之內 亦皆有媯姁之德 而明良賡載之風[歌] 關雎麟趾之化 相與[-]悠久而不替 則箕圖[聖朝]億萬年無疆之休 未必不自是書而肇矣 其有補於治道 夫豈少哉 正憲大夫 工曹判書 兼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同知經筵事 臣成倪 謹跋 [工曹判書 臣成倪 謹記]” <[] 속은 「虛白堂文集」에 收錄된 文章과의 對校임>.

鑑』 및 本朝의 「帝王后妃明鑑」 등의 底本을 바탕으로 轉載하되 그 중에서 別로 勸戒에 關係되지 않은 인물은 除去하고 顯著하여 勸戒가 될 만한데도 脫漏된 인물은 새로이 添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歷代明鑑」에 選取된 人物의 範圍를 파악하기 위하여 「歷代君鑑」·「帝王后妃明鑑」·「歷代臣鑑」 등의 底本과 「歷代明鑑」의 目次를 對比하여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 1> 底本과 「歷代明鑑」에 수록된 收錄人物의 對比와 選取된 人物

鑑目	法目	朝代	底本과 「歷代明鑑」에 收錄된 人物 ¹⁴⁾	選取人物			備考
				㉞	㉟	㊱	
君鑑	善可爲法	三皇	㉞伏羲 ㉞神農 ㉞黃帝	3	0	0	
君鑑	善可爲法	五帝	㉞少昊 ㉞顓頊 ㉞高辛 ㉟帝堯 ㉟帝舜	3	2	0	
君鑑	善可爲法	夏	㉟禹 ㉞啓 ㉞少康	2	1	0	
君鑑	善可爲法	商	㉟成湯 ㉟太甲 ㉟太戊 ㉞盤庚 ㉟武丁	1	4	0	
君鑑	善可爲法	周	㉟文王 ㉟武王 ㉟成王 ㉟康王 ㉟宣王	0	5	0	
君鑑	善可爲法	西漢	㉟高帝 ㉟文帝 ㉟景帝 ㉟武帝 ㉟昭帝 ㉟宣帝	0	6	0	
君鑑	善可爲法	東漢	㉟光武 ㉟明帝 ㉟章帝	0	3	0	
君鑑	善可爲法	蜀漢	㉞昭烈帝	1	0	0	
君鑑	善可爲法	西晉	㉞武帝	1	0	0	
君鑑	善可爲法	東晉	㉞元帝 ㉞明帝	2	0	0	
君鑑	善可爲法	南北朝	㉟宋文帝 ㉟魏孝文帝 ㉟周武帝	0	3	0	
君鑑	善可爲法	唐	㉟太宗 ㉟憲宗 ㉟宣宗	0	3	0	
君鑑	善可爲法	五代	㉟周世宗	0	1	0	
君鑑	善可爲法	宋	㉟太祖 ㉟太宗 ㉟眞宗 ㉟仁宗 ㉞英宗 ㉟神宗 ㉟孝宗 ㉟理宗	1	7	0	
君鑑	善可爲法	金	㉟世宗	0	1	0	
君鑑	善可爲法	元	㉟世祖 ㉟仁宗	0	2	0	
君鑑	善可爲法	大明	㉟太祖高皇帝 ㉟太宗文皇帝 ㉟仁宗昭皇帝 ㉟宣宗章皇帝	0	4	0	
君鑑	惡可爲戒	夏	㉟太康 ㉞孔甲 ㉟履癸	1	2	0	
君鑑	惡可爲戒	商	㉟武乙 ㉟紂辛	0	2	0	
君鑑	惡可爲戒	周	㉟厲王 ㉟幽王	0	2	0	
君鑑	惡可爲戒	秦	㉟始皇 ㉟二世	0	2	0	
君鑑	惡可爲戒	西漢	㉞元帝 ㉟成帝	1	1	0	
君鑑	惡可爲戒	東漢	㉟安帝 ㉟桓帝 ㉟靈帝	0	3	0	
君鑑	惡可爲戒	西晉	㉟惠帝	0	1	0	
君鑑	惡可爲戒	東晉	㉟孝武帝	0	1	0	
君鑑	惡可爲戒	南北朝	㉟宋少帝 ㉟孝武帝 ㉟齊鬱林王 ㉟明帝 ㉟梁武帝 ㉟陳後主 ㉟齊文宣帝 ㉟武成帝 ㉟齊後主 ㉟周宣帝	0	9	1	
君鑑	惡可爲戒	隋	㉟煬帝	0	1	0	
君鑑	惡可爲戒	唐	㉟高宗 ㉟中宗 ㉟代宗 ㉟懿宗 ㉟昭宗	0	3	2	
君鑑	惡可爲戒	五代	㉟唐莊宗	0	1	0	
君鑑	惡可爲戒	宋	㉟徽宗	0	1	0	

14) 收錄人物의 範圍는 底本の 「歷代君鑑」·「帝王后妃明鑑」·「歷代明鑑」 등과 「歷代明鑑」에 수록된 전체 人物이며, 收錄人物 앞의 ㉞·㉟·㊱ 등은 「歷代明鑑」에서 '㉞ 除去人物', '㉟ 轉載人物', '㊱ 添入人物'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君鑑	惡可爲戒	遼	㉞天祚	0	1	0
君鑑	惡可爲戒	金	㉞海陵	0	1	0
君鑑	惡可爲戒	元	㉞順帝	0	1	0
后妃鑑	善可爲法	周	㉞太任 ㉞太姒 ㉞姜后	0	3	0
后妃鑑	善可爲法	列國	㉞齊孟姬 ㉞宋伯姬 ㉞楚樊姬 ㉞楚貞姜 ㉞楚昭 ㉞越姬	0	6	0
后妃鑑	善可爲法	西漢	㉞元帝馮昭儀 ㉞成帝班婕妤 ㉞平帝王皇后	0	3	0
后妃鑑	善可爲法	東漢	㉞明帝明德馬皇后 ㉞和帝和熹鄧皇后	0	2	0
后妃鑑	善可爲法	晉	㉞文帝文明王皇后	0	1	0
后妃鑑	善可爲法	唐	㉞太宗文德順聖皇后 ㉞太宗賢妃徐惠	0	2	0
后妃鑑	善可爲法	五代	㉞漢高祖皇后李氏	0	1	0
后妃鑑	善可爲法	宋	㉞昭憲杜太后 ㉞真宗章穆郭皇后 ㉞真宗章憲明肅劉皇后	0	7	0
			㉞仁宗慈聖光獻曹皇后 ㉞英宗宣仁聖烈高皇后			
			㉞神宗欽聖憲肅向皇后 ㉞高宗憲聖慈烈吳皇后			
后妃鑑	善可爲法	金	㉞世宗昭德皇后 ㉞顯宗孝懿皇后	0	2	0
后妃鑑	善可爲法	元	㉞世祖昭睿順聖皇后	0	1	0
后妃鑑	善可爲法	大明	㉞太祖孝慈昭憲至仁文德承天順聖馬皇后	0	1	0
后妃鑑	惡可爲戒	夏	㉞妹喜	0	1	0
后妃鑑	惡可爲戒	商	㉞妲己	0	1	0
后妃鑑	惡可爲戒	周	㉞褒姒	0	1	0
后妃鑑	惡可爲戒	列國	㉞晉驪姬	0	1	0
后妃鑑	惡可爲戒	西漢	㉞高祖呂皇后 ㉞宣帝霍皇后	0	2	0
后妃鑑	惡可爲戒	東漢	㉞章帝竇皇后 ㉞和帝陰皇后 ㉞安帝安思閻皇后	0	4	0
			㉞桓帝懿獻梁皇后			
后妃鑑	惡可爲戒	西晉	㉞惠帝賈皇后	0	1	0
后妃鑑	惡可爲戒	隋	㉞文帝文獻獨孤皇后	0	1	0
后妃鑑	惡可爲戒	唐	㉞高宗則天武皇后 ㉞玄宗楊貴妃	0	2	0
后妃鑑	惡可爲戒	宋	㉞光宗慈懿李皇后	0	1	0
臣鑑	善可爲法	周	㉞周公 ㉞太公	0	0	2
臣鑑	善可爲法	列國	㉞子產 ㉞晏平仲 ㉞叔向 ㉞公儀休	0	4	0
臣鑑	善可爲法	西漢	㉞蕭何 ㉞曹參 ㉞王陵 ㉞陳平 ㉞周勃 ㉞周亞夫 ㉞張釋之	4	22	2
			㉞石奮 ㉞文翁 ㉞汲黯 ㉞衛青 ㉞霍去病 ㉞霍光 ㉞金日磾			
			㉞蘇武 ㉞張安世 ㉞黃霸 ㉞雋不疑 ㉞韓延壽 ㉞魏相 ㉞丙吉			
			㉞朱邑 ㉞龔遂 ㉞召信臣 ㉞于定國 ㉞蓋寬饒 ㉞趙廣漢			
			㉞趙充國			
臣鑑	善可爲法	東漢	㉞鄧禹 ㉞寇恂 ㉞任延 ㉞馮異 ㉞岑彭 ㉞賈復 ㉞吳漢 ㉞耿弇	11	21	0
			㉞王霸 ㉞蔡遵 ㉞馬援 ㉞卓茂 ㉞桓譚 ㉞郭伋 ㉞杜詩 ㉞張堪			
			㉞耿恭 ㉞魯恭 ㉞第五倫 ㉞龐參 ㉞秦彭 ㉞孟嘗 ㉞劉寵			
			㉞仇覽 ㉞廉范 ㉞楊震 ㉞(乘) ㉞蘇章 ㉞虞詡 ㉞劉寬			
			㉞羊續 ㉞賈琮			
臣鑑	善可爲法	三國	㉞諸葛亮 ㉞關羽 ㉞張飛 ㉞蔣琬 ㉞費禕 ㉞張遼 ㉞張郃	7	8	0
			㉞毛玠 ㉞辛毗 ㉞周瑜 ㉞魯肅 ㉞呂蒙 ㉞步騭 ㉞張昭 ㉞陸遜			
臣鑑	善可爲法	晉	㉞羊祜 ㉞杜預 ㉞祖逖 ㉞王導 ㉞陶侃 ㉞卞壺 ㉞謝安	0	7	0
臣鑑	善可爲法	南北朝	㉞檀道濟 ㉞袁粲 ㉞馮道根 ㉞鄭紹叔 ㉞呂僧珍 ㉞韋叡	29	3	0
			㉞(放榮) ㉞江革 ㉞徐勉 ㉞羊侃 ㉞章昭達 ㉞于栗磾 ㉞(烈)			
			㉞于謹 ㉞叔孫建 ㉞(俊) ㉞源賀 ㉞(懷) ㉞高允 ㉞楊播			
			㉞(椿) ㉞(津) ㉞李崇 ㉞傅豎眼 ㉞高道穆 ㉞段韶 ㉞趙隱			
			㉞辛術 ㉞李弼 ㉞尉遲迴 ㉞蘇綽 ㉞申徽			

臣鑑	善可爲法	隋	①趙綽	0	1	0
臣鑑	善可爲法	唐	①房玄齡 ②杜如晦 ③李靖 ④魏徵 ⑤王圭 ⑥尉遲敬德 ⑦張允濟 ⑧李綱 ⑨戴胄 ⑩馬周 ⑪徐有功 ⑫褚遂良 ⑬狄仁傑 ⑭姚崇 ⑮宋璟 ⑯張九齡 ⑰韓休 ⑱郭子儀 ⑲王忠嗣 ⑳顏真卿 ㉑顏杲卿 ㉒段秀實 ㉓李晟 ㉔馬燧 ㉕渾瑊 ㉖陸贄 ㉗裴度 ㉘張巡 ㉙李絳 ㉚韋丹 ㉛韋景駿 ㉜韓愈	9	21	2
臣鑑	善可爲法	五代	①王彥章	0	1	0
臣鑑	善可爲法	宋	①趙普 ②曹彬 ③呂蒙正 ④李昉 ⑤張齊賢 ⑥楊業 ⑦李沆 ⑧寇準 ⑨王旦 ⑩魯宗道 ⑪蔡齊 ⑫狄青 ⑬張詠 ⑭韓琦 ⑮范仲淹 ⑯富弼 ⑰文彥博 ⑱王曾 ⑲杜衍 ⑳歐陽脩 ㉑趙抃 ㉒包拯 ㉓司馬光 ㉔呂公著 ㉕范純仁 ㉖唐介 ㉗蘇軾 ㉘鮮于侁 ㉙程頤 ㉚李綱 ㉛宗澤 ㉜張浚 ㉝趙鼎 ㉞韓世充 ㉟岳飛 ㊱劉錡 ㊲吳玠 ㊳張俊 ㊴劉光世 ㊵洪皓 ㊶胡銓 ㊷楊存中 ㊸朱熹 ㊹虞允文 ㊺王十朋 ㊻周必大 ㊼真德秀 ㊽文天祥	8	37	3
臣鑑	善可爲法	遼	①高模翰 ②耶律屋質 ③張儉 馬得臣	3	1	0
臣鑑	善可爲法	金	①徒單克寧 ②張萬公 ③韓企先 ④石琚	4	0	0
臣鑑	善可爲法	元	①木華黎 ②史天澤 ③耶律楚材 ④伯顏 ⑤阿里海牙 ⑥完澤 ⑦不忽木 ⑧耶律楚材 ⑨劉秉忠 ⑩廉希憲 ⑪安童 ⑫張文謙 ⑬竇默 ⑭許衡 ⑮徐世隆 ⑯董文用 ⑰拜住 ⑱張瑄 ⑲李孟 ⑳張養浩 ㉑余闕	14	7	0
臣鑑	惡可爲戒	列國	①費無極 ②太宰嚭	0	0	2
臣鑑	惡可爲戒	秦	①商鞅 ②李斯	0	0	2
臣鑑	惡可爲戒	西漢	①田蚡 ②竇成 ③周陽由 ④張湯 ⑤王溫舒 ⑥江充 ⑦公孫敬聲 ⑧上官桀 ⑨霍禹 ⑩淳于長 ⑪王鳳 ⑫息夫躬 ⑬王莽	4	9	0
臣鑑	惡可爲戒	東漢	①彭寵 ②竇憲 ③梁冀 ④董卓 ⑤曹操 ⑥袁術	2	4	0
臣鑑	惡可爲戒	三國	①魏延 ②司馬懿 ③鍾會 ④孫綝 ⑤步騭	5	0	0
臣鑑	惡可爲戒	晉	①王敦 ②蘇峻 ③桓溫 ④桓玄	1	3	0
臣鑑	惡可爲戒	南北朝	①沈攸之 ②范曄 ③朱異 ④侯景 ⑤王偉 ⑥司馬申 ⑦沈客卿 ⑧孔範 ⑨爾朱榮 ⑩和士開 ⑪馮子琮	4	5	2
臣鑑	惡可爲戒	隋	①楊玄感 ②賀若弼 ③宇文述 ④王世充	3	1	0
臣鑑	惡可爲戒	唐	①許敬宗 ②來俊臣 ③周興 ④李義府 ⑤郭弘霸 ⑥李林甫 ⑦吉溫 ⑧楊國忠 ⑨安祿山 ⑩史思明 ⑪盧杞 ⑫李希烈 ⑬朱泚 ⑭元載 ⑮裴延齡 ⑯皇甫鎛 ⑰崔胤	3	5	9
臣鑑	惡可爲戒	五代	①溫韜	1	0	0
臣鑑	惡可爲戒	宋	①曹翰 ②丁謂 ③王安石 ④蔡確 ⑤呂惠卿 ⑥蔡京 ⑦章惇 ⑧蔡卞 ⑨蔡攸 ⑩王黼 ⑪朱勳 ⑫黃潛善 ⑬苗傅 ⑭秦檜 ⑮趙野 ⑯韓侂胄 ⑰吳曦 ⑱賈似道	3	12	3
		遼	①李處溫 ②察割	2	0	0
		金	①赤盞含喜	1	0	0
臣鑑	惡可爲戒	元	①阿合馬 ②桑哥 ③鐵木迭兒 ④朮思監 ⑤孛羅帖木兒	5	0	0
合計				139	290	30

이상을 통하여 보면, 『歷代明鑑』에는 <君鑑>에 77인, <后妃鑑>에 44인, <臣鑑>에 199인 등
三鑑에 포함 320인의 인물이 수록되고 있다.

따라서 「歷代明鑑」에 수록된 320인의 人物은 단순히 「歷代君鑑」·「帝王后妃明鑑」·「歷代臣鑑」 등의 底本에 수록된 人物을 그대로 收錄한 것이 아니라 朝鮮의 實情에 맞도록 選取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人物들을 添入하여 構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表 2> 「歷代明鑑」의 收錄人物과 ‘除去人物’ 및 ‘添入人物’

「歷代君鑑」·「帝王后妃明鑑」·「歷代臣鑑」			「歷代明鑑」			底本과의 對比		備考
底本	法目	收錄人數	鑑目	法目	收錄人數	除去	添入	
「歷代君鑑」	善可爲法	56	君鑑	善可爲法	42	13	0	
「歷代君鑑」	惡可爲戒	34	君鑑	惡可爲戒	35	2	3	
「帝王后妃明鑑」	善可爲法	29	后妃鑑	善可爲法	29	0	0	
「帝王后妃明鑑」	善可爲法	15	后妃鑑	惡可爲戒	15	0	0	
「歷代臣鑑」	善可爲法	222	臣鑑	善可爲法	142	89	9	
「歷代臣鑑」	惡可爲戒	73	臣鑑	惡可爲戒	57	34	18	
合計		429			320	138	30	

「歷代明鑑」의 <君鑑>의 ‘善可爲法’에는 13인이 除去되었으며, ‘惡可爲戒’에서는 2인이 除去되고 3인이 添入되었다. <臣鑑>의 ‘善可爲法’에는 89인이 除去되고 9인이 添入되었으며, ‘惡可爲戒’에서는 34인이 除去되고 18인이 添入되었다. 따라서 <君鑑>과 <臣鑑>의 兩鑑에 걸쳐 道합 138인이 除去되고 30인이 添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后妃鑑>의 경우에는 除去나 添入이 없이 모든 人物이 그대로 轉載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底本人 「帝王后妃明鑑」이 朝鮮의 撰集인 關係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歷代明鑑」에 수록된 人物은 本朝 撰集의 「帝王后妃明鑑」에서는 그대로 轉載하고 中朝 撰集의 「歷代君鑑」과 「歷代臣鑑」에서는 除去와 添入을 가하여 朝鮮의 實情에 맞도록 選取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歷代明鑑」의 撰集樣相

洪貴達의 <歷代明鑑序>에 의하면 「歷代明鑑」의 <君鑑>·<后妃鑑>·<臣鑑>에 수록된 道합 320인 人物의 鑑戒의 內容은 中朝의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朝鮮의 「帝王后妃明鑑」을 底本으로 ① ‘轉載’, ② ‘撮其切要’, ③ ‘刪其繁蕪’, ④ ‘去其全條’ 등의 方法을 비롯하여 나아가 原典인 歷代의 本史를 참고하여 ⑤ ‘添入新段’의 方法도 사용하여 찬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類型別 撰集의 樣相을 살피기 위하여 「歷代君鑑」¹⁵⁾과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歷代明鑑」(卷4)¹⁶⁾에 수록된 本문의 內容을 對比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3> 「歷代君鑑」과 「歷代明鑑」의 本文의 對比

番號	朝代	人物	「歷代君鑑」 ¹⁷⁾	「歷代明鑑」(卷4) ¹⁸⁾		備考 ¹⁹⁾
			內容	條	內容	
01	宋	太祖	太祖高皇帝諱光胤姓趙氏涿郡人也唐天成二年生於洛陽夾馬營容貌雄偉器度豁如識者知其非常人性孝友節儉嚴重寡言獨喜觀書雖在軍中手不釋卷人間有奇書不吝千金購之初學騎射輒出人上乾隆元年春正月帝受周禪即皇帝位	01	太祖諱光胤姓趙氏孝友節儉嚴重寡言喜觀書雖在軍中手不釋卷人間有奇書不吝千金購之	②
02	宋	太祖	三月命崔頌教國子乃聚生徒講學遣使者賜酒果以寵異學者初周世宗命營國子監置學舍未成而殂帝即位詔增葺祠宇塑繪先聖先師之像自爲王孔顏之座端令文臣分撰餘贊屢臨幸焉嘗謂侍臣曰朕欲武臣盡令讀書以知爲治之道於是臣庶始貴文學矣	02	初周世宗命營國子監置學舍未成而殂帝即位詔增葺祠宇塑繪先聖先師之像自爲贊書于孔顏之座端令文臣分撰餘贊屢臨幸焉嘗謂侍臣曰朕欲武臣盡令讀書以知爲治之道於是臣庶始貴文學矣	②
03	宋	太祖	二年春正月帝謂宰相曰五代以來諸侯跋扈有枉法殺人者朝廷皆置而不問刑部之職徒爲虛設且人命至重姑息藩鎮當若是耶自今諸州決大辟訖錄案聞奏委刑部覆視之嘗讀尙書嘆曰堯舜之世四凶之罪止於流放何近代法網之密耶故其後犯大辟非情理深害者多得貸死惟臧吏棄市則未嘗容貸又以夏月暑氣方盛深念縲繫之苦乃詔西京諸州令長吏督掌獄掾五日一檢視洒掃獄戶洗滌杻械貧困不能自存者給飲食病者給藥輕繫小罪即時決遣無得淹滯每歲仲夏必申明是詔以戒官吏焉	03	嘗讀尙書嘆曰堯舜之世四凶之罪止於流放何近代法網之密耶故其後犯大辟非情理深害者多得貸死惟臧吏棄市則未嘗容貸又以夏月暑氣方盛深念縲繫之苦乃詔西京諸州令長吏督掌獄掾五日一檢視洒掃獄戶洗滌杻械貧困不能自存者給飲食病者給藥輕繫小罪即時決遣無得淹滯每歲仲夏必申明是詔以戒官吏焉	②
04	宋	太祖	夏大旱詔諸州長吏視民田旱甚者即蠲其租不俟報	04	大旱詔諸州長吏視民田旱甚者即蠲其租不俟報	③
05	宋	太祖	帝躬履儉約衣澣濯之衣乘輿服用皆尙質素寢殿設青布緣葦簾宮閣帘幕無文采之飾嘗出麻屨布裳賜左右曰此我舊服用也開封尹光義因侍宴禁中從容言陛下服用太草草帝正色曰爾不記居夾馬營中時耶	05	帝躬履儉約衣澣濯之衣乘輿服用皆尙質素寢殿設青布緣葦簾宮閣帘幕無文采之飾嘗出麻屨布裳賜左右曰此我舊服用也開封尹光義因侍宴禁中從容言陛下服用太草草帝正色曰爾不記居夾馬營中時耶	①

15) 代宗 御撰, 「歷代君鑑」.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景泰 4(1453) 序].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16)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卷1-4.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序]. <大邱가톨릭大學校中央圖書館所藏本>.
 17) 「歷代君鑑」의 內容에서 ‘某某’는 「歷代明鑑」에서 刪去된 字句나 文章을 나타내며, ‘某某’는 異體字로 기록된 字句를 나타내는 것이다.
 18) 「歷代明鑑」의 內容에서 ‘一’는 「歷代君鑑」 內容의 全條가 刪去된 것을 나타내고 「某某」는 全條가 添入된 것을 나타내며, ‘某某’는 異體字로 기록된 字句들을 나타내고 ‘某某’는 부분적으로 添入된 字句를 나타내는 것이다.
 19) 備考欄의 番號는 ① ‘轉載’, ② ‘撮其切要’, ③ ‘刪其繁蕪’, ④ ‘去其全條’, ⑤ ‘添入新段’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 06 宋 太祖 皇第三女永慶公主嘗衣貼繡鋪翠襦入宮中帝見之謂主曰汝當以此與我自今勿復爲此飾主笑曰此所用翠羽幾何帝曰不然主家服此宮闈威里必相效京城翠羽價高小民逐利展轉販易傷生寢廣實汝之由汝生長富貴當念惜福豈可造此惡業之端主慚謝主因侍坐與皇后同言曰官家作天子日久豈不能用黃金裝肩輿乘以出入帝笑曰我以四海之富宮殿悉以金銀爲飾力亦可辦但念我爲天下守財耳豈可妄用古稱以一人治天下不以天下奉一人苟以自奉養爲意使天下之人何仰哉 ③
- 07 宋 太祖 開寶元年正月大內營繕皆畢賜諸門名帝坐正殿令洞開諸門皆端直軒豁無有壅蔽因謂左右曰此如我心少有邪曲人皆見之矣呂中曰天下之事皆經綸於人主之一心人主之心正則天下之事無一不出於正人主之心不正則天下之事無一得由於正是以人主以眇然之身居深宮之中其心之邪正若不可窺而其著見於外者常若手指目視而不可掩也此堯舜相授所以有惟精惟一之戒以我太祖立國之初規模廣大如漢高帝謀慮深遠如漢光武而正心符印密契三聖之傳於數千載之上朱文公曰太祖不爲言語文字之學而方寸之地正大光明直與堯舜之心合信哉斯言 ②
- 08 宋 太祖 河大決澶州濮陽縣命潁州團練使曹翰往塞之翰辭於便殿帝謂曰霖雨不止又聞河決朕信宿以來焚香上禱于天若天災流行願在朕躬勿施于民翰頓首拜曰昔宋景公諸侯耳一發善言灾星爲之退舍今陛下憂及兆民懇禱如是固宜上感天心此必不能爲灾也翌日帝謂宰相曰霖雨不止朕日夜焦勞罔知所措得非時政有關使之然耶又曰朕又思之恐掖庭幽閉者衆昨徧籍後宮凡三百八十餘人因告諭願歸其家者具以情言得百五十餘人悉厚賜遣之矣趙普等皆稱萬歲在位十七年享年五十 添入'趙'
- 09 宋 太宗 太宗皇帝諱炘初名匡又改賜光義即位之二年改今諱宣祖第三子帝幼不群與他兒戲皆畏服及長隆準龍顏望之知爲大人儼如也性嗜學宣祖總兵淮南破州縣財物悉不取第求古書遺帝恒勸勵之帝由是工文業多藝能開寶九年冬十月即位大赦天下 ②
- 10 宋 太宗 嘗畋近郊因以閱武賜禁軍校及衛士襦袴時禁盜獵有衛士獲麋違令當死帝曰我若殺之後世必謂我重獸而輕人命釋之他 ③

- 日謂侍臣曰朕每念古人禽荒之戒自今除有司順時行禮之外更不於近甸遊獵五坊鷹犬悉解放之庶表好生之意遂詔天下勿復以鷹犬來獻
- 11 宋 太宗 詔史館所脩太平總類自今日進三卷朕當親覽宋琪等言窮歲短晷日閱三卷恐聖躬疲倦帝曰朕性喜書開書有益不為勞也此書千卷朕欲一年讀遍因思學者讀萬卷書亦不為難耳尋改總類名曰太平御覽又嘗於禁中建清心殿收藏圖籍以資遊覽每召邢昺張奭等更迭講說質間疑義久而方罷帝之篤好學問蓋出於天性云
- 12 宋 太宗 樞密使王顯等嘗侍宴數視帝袴帝怪而問之顯等曰陛下所衣袴文縷俱倒帝笑曰朕未嘗御新衣蓋澣濯頻所致耳帝因言此雖偏下已甚蓋念機杼勞苦欲示敦朴為天下先也
- 13 宋 太宗 嘗令左藏庫籍所掌金銀器皿之屬悉毀之有司言中有製作精巧者欲留以備進御帝曰將焉用此汝以奇巧為貴我以慈儉為寶卒皆毀之左正言直史館謝泌賀曰聖意如是天下大幸帝性節儉退朝嘗著華陽巾布褐袖條內服惟純絹乘輿給用之物無所增益焉
- 14 宋 太宗 左正言謝泌數奏章論時政得失帝嘉其忠蓋擢左司諫賜金紫并錢三十萬泌一日得對便殿帝復面加賞激泌對曰陛下從諫如流故臣得以竭誠昔唐末有孟昭圖者朝上諫疏暮不知所在前代如此安得不亂帝動容久之曰寇準奏事切直帝怒而起準攀帝衣請復坐事決乃退帝嘉嘆曰此真宰相也又語左右曰朕得寇準猶唐太宗之得魏鄭公也
- 15 宋 太宗 帝遣使諸路察獄因謂侍臣曰刑辟之際君子之所盡心稍有冤枉必傷和氣且齊女負冤天為枯旱燕臣無罪六月飛霜自昔水旱作沴未有不由於此居官牧民尤當戒之後嘗錄京城諸司繫囚多所原減決事遂至日吁近臣或諫以勞苦過甚帝曰不然儻惠及無告使獄訟平允不致枉撓朕意深以為適何勞之有
- 16 宋 太宗 帝孜孜為治每旦御長春殿受朝聽政畢即御崇政殿決事比至日中尚未御食金部員外郎謝泌上言請自今前殿聽政畢且進食然後御便殿決事帝不荅既而謂宰相曰文王自朝至于日中昃不遑暇食此自有故事又嘗曰寸陰可惜苟終日為善百年之內亦無幾耳可不勉乎
- 謂侍臣曰朕每念古人禽荒之戒自今除有司順時行禮之外更不於近甸遊獵五坊鷹犬悉解放之庶表好生之意遂詔天下勿復以鷹犬來獻
- 03 詔史館所脩太平總類自今日進三卷朕當親覽宋琪等言窮歲短晷日閱三卷恐聖躬疲倦帝曰朕性喜書開書有益不為勞也此書千卷朕欲一年讀遍因思學者讀萬卷書亦不為難耳尋改總類名曰太平御覽又嘗於禁中建清心殿收藏圖籍以資遊覽每召邢昺張奭等更迭講說質間疑義久而方罷帝之篤好學問蓋出於天性云 ①
- 04 樞密使王顯等嘗侍宴數視帝袴帝怪而問之顯等曰陛下所衣袴文縷俱倒帝笑曰朕未嘗御新衣蓋澣濯頻所致耳帝因言此雖偏下已甚蓋念機杼勞苦欲示敦朴為天下先也 ①
- 05 嘗令左藏庫籍所掌金銀器皿之屬悉毀之有司言中有製作精巧者欲留以備進御帝曰將焉用此汝以奇巧為貴我以慈儉為寶卒皆毀之左正言直史館謝泌賀曰聖意如是天下大幸帝性節儉退朝嘗著華陽巾布褐袖條內服惟純絹乘輿給用之物無所增益焉 ①
- 06 左正言謝泌數奏章論時政得失帝嘉其忠蓋擢左司諫賜金紫并錢三十萬泌一日得對便殿帝復面加賞激泌對曰陛下從諫如流故臣得以竭誠昔唐末有孟昭圖者朝上諫疏暮不知所在前代如此安得不亂帝動容久之曰寇準奏事切直帝怒而起準攀帝衣請復坐事決乃退帝嘉嘆曰此真宰相也又語左右曰朕得寇準猶唐太宗之得魏鄭公也 ①
- 07 帝遣使諸路察獄因謂侍臣曰刑辟之際君子之所盡心稍有冤枉必傷和氣且齊女負冤天為枯旱燕臣無罪六月飛霜自昔水旱作沴未有不由於此居官牧民尤當戒之後嘗錄京城諸司繫囚多所原減決事遂至日吁近臣或諫以勞苦過甚帝曰不然儻惠及無告使獄訟平允不致枉撓朕意深以為適何勞之有 ①
- 08 帝孜孜為治每旦御長春殿受朝聽政畢即御崇政殿決事比至日中尚未御食金部員外郎謝泌上言請自今前殿聽政畢且進食然後御便殿決事帝不荅既而謂宰相曰文王自朝至于日中昃不遑暇食此自有故事又嘗曰寸陰可惜苟終日為善百年之內亦無幾耳可不勉乎 ①

- 17 宋 太宗 二月帝手詔戒陳王元僖等曰汝等生於富貴長自深宮民庶艱難人之善惡皆恐未曉略說其本豈盡余懷夫帝子親王先須克己勵情聽卑納諫每著一衣則憫蠶婦每餐一食則念耕夫至於聽斷之間勿先恣其喜怒朕每親臨庶政豈敢憚於焦勞禮接群臣無非求於啓沃汝等勿鄙人短勿恃己長乃可永守富貴而終吉先賢有言曰逆吾者是吾師順吾者是吾賊此不可以不察也時元僖爲開封尹御史中丞嘗劾奏之元僖不平訴于帝曰臣天子兒以犯中丞故被鞠願賜寬宥帝曰此朝廷儀制孰敢違之朕若有過臣下尙加糾擿汝爲開封尹可不奉法耶論罰如式○帝在位二十二年五十九
- 09 帝手詔戒陳王元僖等曰汝等生於富貴長自深宮民庶艱難人之善惡皆恐未曉略說其本豈盡余懷夫帝子親王先須克己勵情聽卑納諫每著一衣則憫蠶婦每餐一食則念耕夫至於聽斷之間勿先恣其喜怒朕每親臨庶政豈敢憚於焦勞禮接羣臣無非求於啓沃汝等勿鄙人短勿恃己長乃可永守富貴而終吉先賢有言曰逆吾者是吾師順吾者是吾賊此不可以不察也時元僖爲開封尹御史中丞嘗劾奏之元僖不平訴于帝曰臣天子兒以犯中丞故被鞠願賜寬宥帝曰此朝廷儀制孰敢違之朕若有過臣下尙加糾擿汝爲開封尹可不奉法耶論罰如式在位二十二年五十九 ③
- 18 宋 眞宗 眞宗皇帝諱恒太宗第三子也初封韓王進封壽王至道元年卽位皇太子三年三月太宗崩卽皇帝位
- 01 眞宗諱恒太宗第三子 ②
- 19 宋 眞宗 五月帝謂輔臣曰宮中嬪御頗多幽閉可憫朕已令擇給事歲深者放之呂端等曰陛下卽位之初首行此令實哲王之懿範也又曰諸州多以珍禽異獸祥瑞之物來獻此甚無益在朕薄德非所敢當但令稼穡豐稔且得賢臣乃爲瑞也自今其令天下勿復獻珍禽奇獸及諸祥瑞時有建議請增損舊政者帝曰先帝賜名之日撫朕何敢忘因涕泣衣座右無不感咽
- 02 帝謂輔臣曰宮中嬪御頗多幽閉可憫朕已令擇給事歲深者放之呂端等曰陛下卽位之初首行此令實哲王之懿範也又曰諸州多以珍禽異獸祥瑞之物來獻此甚無益在朕薄德非所敢當但令稼穡豐稔且得賢臣乃爲瑞也自今其令天下勿復獻珍禽奇獸及諸祥瑞 ②
- 20 宋 眞宗 帝自卽位每旦御前殿中書樞密院三司開封府審刑院及請對官以次奏事至辰後還宮進食少時復出御後殿視諸司事或閱軍士校試武藝日中而罷夜則召儒臣詢問得失或至夜分還宮其後率以爲常
- 03 帝自卽位每旦御前殿中書樞密院三司開封府審刑院及請對官以次奏事至辰後還宮進食少時復出御後殿視諸司事或閱軍士校試武藝日中而罷夜則召儒臣詢問得失或至夜分還宮其後率以爲常 ①
- 21 宋 眞宗 六年秦國長公主以人有所遺欠納其女爲質帝聞之還其父母又嘗爲其子六院使王世隆求近京刺史帝曰牧守親民之官繫朝廷公議不許壽春縣主上言夫兄侯紹卿掌芻積被劾勾釋其罪帝曰損壞官物自有常刑不可免也魯國長公主上言乞授翰林醫官趙自化尙食使兼醫官院事帝謂樞密使王繼英等曰雍王元份亦嘗以自化藥餌有功請除遙郡刺史諭以醫官領郡非朝廷典制不可行也況自化今爲本院使居醫官之首安可更有請求宜召至樞密院戒督之○帝在位二十六年享年五十有五
- 04 秦國長公主以人有所遺欠納其女爲質帝聞之還其父母又嘗爲其子六院使王世隆求近京刺史帝曰牧守親民之官繫朝廷公議不許壽春縣主上言夫兄侯紹卿掌芻積被劾勾釋其罪帝曰損壞官物自有常刑不可免也魯國長公主上言乞授翰林醫官趙自化尙食使兼醫官院事帝謂樞密使王繼英等曰雍王元份亦嘗以自化藥餌有功請除遙郡刺史諭以醫官領郡非朝廷典制不可行也況自化今爲本院使居醫官之首安可更有請求宜召至樞密院戒督之在位二十六年享年五十有五 ③
- 22 宋 仁宗 仁宗皇帝諱禎眞宗第六子母李宸妃章憲皇后無子取爲其子養之天性仁孝寬裕喜愠不形於色封壽春郡王講學于資善堂進封昇王冊爲皇太子眞宗崩卽皇帝位年十三
- 01 仁宗諱禎眞宗第六子 ②

- | | | | | | |
|----|------|--|----|--|---|
| 23 | 宋 仁宗 | 三年五月幸南御莊觀刈麥聞民舍機杼聲召問之乃一貧婦也因賜以茶帛諭輔臣曰其勤如此而貪可無恤哉 | 02 | 幸南御莊觀刈麥聞民舍機杼聲召問之乃一貧婦也因賜以茶帛諭輔臣曰其勤如此而貪可無恤哉 | ③ |
| 24 | 宋 仁宗 | 四年安德節度推官李佑唐莊宗曾孫也上書求便官以掃洒陵廟改授西京留守推官因謂輔臣曰唐莊宗百戰滅梁始有天下不務修德而溺於聲樂嬖用佞官以及於禍良可嘆也王曾對曰陛下日聽政事又覽前代治亂之跡以為龜鑒天下之福也知寧州職方員外郎楊及因乾元節獻繡佛帝謂輔臣曰及佞人也民安政舉乃守臣之職焉用此為其令邸吏還之 | 03 | 知寧州職方員外郎楊及因乾元節獻繡佛帝謂輔臣曰及佞人也民安政舉乃守臣之職焉用此為其令邸吏還之 | ② |
| 25 | 宋 仁宗 | 丙申上謂輔臣曰每退朝凡天下之奏必親覽之呂夷簡曰若小事皆關聽覽恐非所以輔養聖神上曰朕承先帝之託況以萬幾之重敢自泰乎又曰朕日膳不欲事珍美衣服多以縑繪為之至屢經澣濯而宮人或以為笑大官進膳有蟲在食器中朕掩而不言恐罪及有司也夷簡曰陛下孝以奉先儉以臨下雖古盛德何以加此上曰此偶與卿等言之非欲聞於外嫌其近名爾 ²⁰⁾ | 04 | [帝謂輔臣曰朕每退朝凡天下之奏必親覽之呂夷簡曰若小事皆關聽覽恐非所以輔養聖神帝曰朕承先帝之託況以萬幾之重敢自泰乎又曰朕日膳不欲事珍味衣服多以縑繪為之至屢經澣濯而宮人或以為笑大官進膳有蟲在食器中朕掩而不言恐罪及有司也夷簡曰陛下孝以奉先儉以臨下雖古盛德何以加此帝曰此偶與卿等言之非欲聞於外嫌其近名爾] | ⑤ |
| 26 | 宋 仁宗 | 十一月出內庫真珠估繒錢三十萬賜三司帝諭輔臣曰此無用之物既不能捐棄不若散之民間收其直助糴邊儲亦可以少紓吾民之歛也 | 05 | 出內庫真珠估繒錢三十萬賜三司帝諭輔臣曰此無用之物既不能捐棄不若散之民間收其直助糴邊儲亦可以少紓吾民之歛也 | ③ |
| 27 | 宋 仁宗 | 七年三月詔曰自冬迄春嘆旱未已五種弗入農失作業朕謂災變之來應不虛發殆不敏不明以干上帝之怒咎自朕致民實何愆與其降疾于人若不若移災於朕自今避正殿減常膳中外臣僚指當世切務實封條上三事大夫其協心交警稱予震懼之意焉帝每命學士草詔未嘗有增損至是楊察當筆既進詔草以為未盡罪已之意令更為此詔 | 06 | 詔曰自冬迄春嘆旱未已五種弗入農失作業朕謂災變之來應不虛發殆不敏不明以干上帝之怒咎自朕致民實何愆與其降疾于人若不若移災於朕自今避正殿減常膳中外臣僚指當世切務實封條上三事大夫其協心交警稱予震懼之意焉帝每命學士草詔未嘗有增損至是楊察當筆既進詔草以為未盡罪已之意令更為此詔 | ③ |
| 28 | 宋 仁宗 | 皇祐元年正月庚戌太傅致仕鄧國公張士遜卒車駕臨奠翌日謂輔臣曰昨有言庚戌是朕本命不宜臨喪朕以師臣之舊故不避文彥博曰唐太宗辰日哭張公瑾陛下過之遠矣 | 07 | 太傅致仕鄧國公張士遜卒車駕臨奠翌日謂輔臣曰昨有言庚戌是朕本命不宜臨喪朕以師臣之舊故不避文彥博曰唐太宗辰日哭張公瑾陛下過之遠矣 | ③ |
| 29 | 宋 仁宗 | 三年四月御邇英閣謂講讀官曰易旨精微朕每以疑難問卿等得無為煩乎曾公亮對曰臣等幸承聖問懼不能對豈敢言煩帝曰 | 08 | 御邇英閣謂講讀官曰易旨精微朕每以疑難問卿等得無為煩乎曾公亮對曰臣等幸承聖問懼不能對豈敢言煩帝曰卿等宿儒 | ② |

20) 李燾 編著,『續資治通鑑長編』. 卷113. 宋. 仁宗. 明道 2(癸酉, 1033)年 12月 4(丙申)日條.

“丙申上謂輔臣曰每退朝凡天下之奏必親覽之呂夷簡曰若小事皆關聽覽恐非所以輔養聖神上曰朕承先帝之託況以萬幾之重敢自泰乎又曰朕日膳不欲事珍美衣服多以縑繪為之至屢經澣濯而宮人或以為笑大官進膳有蟲在食器中朕掩而不言恐罪及有司也夷簡曰陛下孝以奉先儉以臨下雖古盛德何以加此上曰此偶與卿等言之非欲聞於外嫌其近名爾.”

- 卿等宿儒博學多所發明朕雖盛暑亦未嘗倦但恐卿等勞爾丁度復進曰自古帝王臨御日久非內惑聲色則外窮兵黷武陛下即位三十年孜孜聖學雖堯舜之聰明不是過因頓首稱謝尋詔講讀官當講讀者立侍數對餘皆坐侍自景祐以來皆立侍至是遂為永制嘗講書無逸帝曰朕深知享國之君宜戒逸豫楊安國言舊有無逸圖請列於屏間帝曰朕不欲坐席背聖人之言當別書置之左方因命丁度取孝治聖治廣要道四章對為右圖乃令王洙書無逸蔡襄書孝經又命翰林學士承旨王拱辰為二圖序而襄書之
- 30 宋 仁宗 五月眉州彭山縣上瑞麥圖凡一莖五穗者數本帝曰朕嘗禁四方獻瑞今麥秀如此可謂真瑞矣其賜田夫束帛以勸之無為軍獻芝草三百五十本帝曰朕以豐年為瑞賢臣為寶至於草木魚蟲之異焉足尚哉知軍茹孝標特免罪仍戒天下自今毋得以聞
- 31 宋 仁宗 汝州部署楊景宗求為郡帝謂輔臣曰景宗章惠太后之弟朕豈不念之然性貪虐老而益甚今與郡則一方之民受禍矣不許教坊官王世昌自陳年勞乞監永濟倉門帝曰世昌本亦士人以無行檢遂充此職且倉門乃國家糧儲出納之所豈可令此輩主之宜與在京一廟令
- 32 宋 仁宗 夏四月內出欵器一陳於邈英閣御座前諭丁度等曰朕思古欵器之法試令工人制之以示卿等命以水注之中則正滿則覆虛則欵率如家語淮南荀卿之說其制度精好度等列侍觀之帝曰日中則昃月盈則虧朕欲以中正臨天下當與卿等共守此道度拜曰臣等亦願無傾滿以事陛下因言太宗嘗作此器真宗亦嘗著論於是製後述以賜度等
- 33 宋 仁宗 十二月己丑雪初帝以愆克責躬減膳見輔臣則憂形於色寵籍等因言臣等不能燮理陰陽乃上煩聖慮願守散職以避賢路帝曰是朕誠不能感天而惠不能及民非卿等之過也是夕乃得雪
- 34 宋 仁宗 諫官韓絳因對而言曰天子之柄不可移事當問出睿斷帝曰朕固不憚自有處分所慮未中於理而有司奉行則其害已加乎人故每欲先盡大臣之慮而後行之
- 35 宋 仁宗 夏四月邈英閣講書罔命侍御僕從罔匪正人帝曰君臣之際必誠意相通而後治道成楊安國曰陛下聰明文思從諫弗拂如水之趨下視群臣若僚友自古盛王未之有也帝曰陛下能盡忠言朕何惜夏禹之拜講周禮
- 博學多所發明朕雖盛暑亦未嘗倦但恐卿等勞爾丁度復進曰自古帝王臨御日久非內惑聲色則外窮兵黷武陛下即位三十年孜孜聖學雖堯舜之聰明不是過因頓首稱謝尋詔講讀官當講讀者立侍數對餘皆坐侍自景祐以來皆立侍至是遂為永制嘗講書無逸帝曰朕深知享國之君宜戒逸豫楊安國言舊有無逸圖請列於屏間帝曰朕不欲坐席背聖人之言當別書置之左方因命丁度取孝治聖治廣要道四章對為右圖
- 09 眉州彭山縣上瑞麥圖凡一莖五穗者數本帝曰朕嘗禁四方獻瑞今麥秀如此可謂真瑞矣其賜田夫束帛以勸之無為軍獻芝草三百五十本帝曰朕以豐年為瑞賢臣為寶至於草木魚蟲之異焉足尚哉知軍茹孝標特免罪仍戒天下自今毋得以聞 ③
- 10 汝州部署楊景宗求為郡帝謂輔臣曰景宗章惠太后之弟朕豈不念之然性貪虐老而益甚今與郡則一方之民受禍矣不許教坊官王世昌自陳年勞乞監永濟倉門帝曰世昌本亦士人以無行檢遂充此職且倉門乃國家糧儲出納之所豈可令此輩主之宜與在京一廟令 ①
- 11 內出欵器一陳於邈英閣御座前諭丁度等曰朕思古欵器之法試令工人制之以示卿等命以水注之中則正滿則覆虛則欵率如家語淮南荀卿之說其制度精好度等列侍觀之帝曰日中則昃月盈則虧朕欲以中正臨天下當與卿等共守此道度拜曰臣等亦願無傾滿以事陛下 ②
- 12 十二月己丑雪初帝以愆克責躬減膳見輔臣則憂形於色寵籍等因言臣等不能燮理陰陽乃上煩聖慮願守散職以避賢路帝曰是朕誠不能感天而惠不能及民非卿等之過也是夕乃得雪 ①
- 13 諫官韓絳因對而言曰天子之柄不可移事當問出睿斷帝曰朕固不憚自有處分所慮未中於理而有司奉行則其害已加乎人故每欲先盡大臣之慮而後行之 ①
- 14 邈英閣講書罔命侍御僕從罔匪正人帝曰君臣之際必誠意相通而後治道成楊安國曰陛下聰明文思從諫弗拂如水之趨下視羣臣若僚友自古盛王未之有也帝曰陛下能盡忠言朕何惜夏禹之拜 ②

大荒大札則薄征緩刑楊安國曰所謂緩刑者乃過誤之民耳當歲歉則赦之閔其窮也今衆持兵仗劫糧廩一切寬之故不足以禁奸帝曰不然天下皆吾赤子也一遇饑饉州縣不能存恤餓殍所迫遂至爲盜又捕而殺之不亦甚乎講周禮視祫帝謂講官盧士宗曰妖祥之興皆由人事君人者必在修德以承天意乎講周禮祭祀割羊牲登其首王洙曰祭陽以其首首主陽祭陰以其血血主陰也神明不測故但以其類而求之帝曰然天地簡易非已誠其能應乎又講左氏傳鄭人鑄刑書洙曰子產以鄭國之法鑄之於鼎故使民知犯某罪有某罰帝曰使民知法爲亂可止不若不知而自化也

- | | | | | | | |
|----|---|----|--|----|--|---|
| 36 | 宋 | 仁宗 | 至和元年正月碎通天犀和藥以療民疾時京師大疫令太醫進方內出犀牛角二本析而觀之其一通天犀也內侍李舜卿請留供服御帝曰吾豈貴異物而賤百姓哉立命碎之 | 15 | 京師大疫令太醫進方內出犀牛角二本析而觀之其一通天犀也內侍李舜卿請留供服御帝曰吾豈貴異物而賤百姓哉立命碎之 | ② |
| 37 | 宋 | 仁宗 | 八年二月中書樞密院奏事於景福殿之西閣見帝所御幄幙裯褥皆質素暗蔽久而不易帝謂韓琦等曰朕宮中自奉止如此此亦生民之膏血也可輕費之哉帝在位四十二年享年五十四 | 16 | 中書樞密院奏事於景福殿之西閣見帝所御幄幙裯褥皆質素暗蔽久而不易帝謂韓琦等曰朕宮中自奉止如此此亦生民之膏血也可輕費之哉在位四十二年享年五十四 | ③ |
| 38 | 宋 | 英宗 | [1人物 17條] | | | ④ |
| 39 | 宋 | 神宗 | 神宗皇帝諱項英宗長子隆準龍顏動止皆有常度而天性好學至日晏忘食英宗常遣內侍止之帝每正衣冠拱手雖大暑未嘗用扇侍講王陶入侍率弟灝拜之治平三年十二月立爲皇太子四年正月卽皇帝位 | 01 | 神宗諱項英宗長子 | ② |
| 40 | 宋 | 神宗 | 帝出諸州貢物凡四十三州七十種手詔曰四方入貢雖云古禮考之禹制未有若茲之繁也今則一郡歲有三四至者言念道路之勤疲費亦廣至聞主押衙校有棄業終身不能償者耗蠹民力莫不由斯又所貢物多飲食之類雖關之亦無害也書不云乎不作無益害有益非謂此耶朕甚不取自今其悉罷之 | 02 | 帝出諸州貢物凡四十三州七十種手詔曰四方入貢雖云古禮考之禹制未有若茲之繁也今則一郡歲有三四至者言念道路之勤疲費亦廣至聞主押衙校有棄業終身不能償者耗蠹民力莫不由斯又所貢物多飲食之類雖關之亦無害也書不云乎不作無益害有益非謂此耶朕甚不取自今其悉罷之 | ① |
| 41 | 宋 | 神宗 | 熙寧元年春正月帝以經冬無雪手詔令宰相曾公亮等述朕躬過失及時政未符天意者公亮等各引過稱謝帝曰日與卿等相見議政之外未聞忠規朕非欲文飾誠冀卿等極言闕失以答天變也 | 03 | 帝以經冬無雪手詔令宰相曾公亮等述朕躬過失及時政未符天意者公亮等各引過稱謝帝曰日與卿等相見議政之外未聞忠規朕非欲文飾誠冀卿等極言闕失以答天變也 | ③ |
| 42 | 宋 | 神宗 | 夏四月大旱帝避殿減膳罷同天節上壽卽日雨富弼言願陛下未以今日雨澤爲善當以累年災變爲懼蓋脩德致雨其應如此萬一於德有損其災應豈有緩耶帝親書詔答 | 04 | 大旱帝避殿減膳罷同天節上壽卽日雨富弼言願陛下未以今日雨澤爲善當以累年災變爲懼蓋脩德致雨其應如此萬一於德有損其災應豈有緩耶帝親書詔答曰敢不 | ③ |

- 曰敢不置之枕席銘諸肺腑終老是戒更願公不替今日之志則天災不難弭太平可俟也
- 43 宋 神宗 五年五月帝諭執政曰人主動作不當有欲以害政漢武至不仁以一馬之故勞師萬里侯者七十餘人視人命若草芥所以戶口減半也人命至重天地之大德曰曰生豈可如此又曰有政事則豈特人得其所鳥獸魚鼈亦咸若如數罟不入汚池即魚鼈亦得遂其生長矣○帝在位十九年年三十八
- 44 宋 孝宗 孝宗皇帝諱昀字元永太祖六世孫子稱之子也高宗選帝育于禁中立書院教之帝讀書彊記天資特異遂立爲皇太子可即皇帝位朕稱太上皇帝退處德壽宮帝遜避輔臣固請帝愀然曰君父之命出於獨斷然此大位懼不克當及即位太上皇帝即駕之德壽宮帝服袍履步出祥曦殿門冒雨掖輦以行及宮門弗止上皇麾謝再三且令左右扶掖以還顧曰付託得人吾无憾矣
- 45 宋 孝宗 帝手書召張浚入見浚至帝改容曰久聞公名今朝廷所恃惟公因賜之坐浚從容言人主之學以一心爲本一心合天何事不濟所謂天者天下之公理而已必兢業自持師清明在躬則賞罰舉措無不當人心自歸敵國自服帝悚然曰當不忘公言
- 46 宋 孝宗 八月詔云比日飛蝗益多又聞諸路州縣風水爲災朕避正殿減常膳二三大臣其盡忠省過監司郡守各務身率戢姦禁暴平冤察獄所在災傷依條賑卹檢放如有隱匿不以聞者重寘典憲師徒未息科調繁興江淮襄蜀尤極勞擾疆場之吏宜加安輯蠲其苛斂以稱德意
- 47 宋 孝宗 二年帝謂侍讀官周執羔等曰朕雖無大過豈無小失卿等不聞有所規諫恐思慮有所未至賴卿等裨益執羔等曰陛下聖明事無過舉帝曰卿等若只備位非所望於卿等又曰卿有所言朕未嘗不行朕有過失卿當直言有司過失亦當言之
- 48 宋 孝宗 新除吏部尙書陳俊卿入對言銓綜事有成法臣固當謹守第愚淺之見或有不及望陛下時警敕之蓋君臣之分雖嚴而上下之情不可不通帝曰卿言是也朕或有過卿亦宜盡言俊卿奏自古惟唐太宗能導人使諫所以致貞觀之治今陛下導臣使諫臣敢不奉詔帝曰朕每讀太宗事未嘗不慕之若德宗之忌克不樂受言亦未嘗不鄙之也
- 49 宋 孝宗 三年鎮江軍帥戚方刻剝役使軍士嗟怨言
- 置之枕席銘諸肺腑終老是戒更願公不替今日之志則天災不難弭太平可俟也
- 05 帝諭執政以一馬之故勞師萬里侯者七十餘人視人命若草芥所以戶口減半也人命至重豈可如此在位十九年年三十八 ②
- 01 孝宗諱昀太祖六世孫子稱之子 ②
- 02 帝手書召張浚入見浚至帝改容曰久聞公名今朝廷所恃惟公因賜之坐浚從容言人主之學以一心爲本一心合天何事不濟所謂天者天下之公理而已必兢業自持師清明在躬則賞罰舉措無不當人心自歸敵國自服帝悚然曰當不忘公言 ①
- 03 詔云比日飛蝗益多又聞諸路州縣風水爲災朕避正殿減常膳二三大臣其盡忠省過監司郡守各務身率戢姦禁暴平冤察獄所在災傷依條賑卹檢放如有隱匿不以聞者重寘典憲師徒未息科調繁興江淮襄蜀尤極勞擾疆場之吏宜加安輯蠲其苛斂以稱德意 ③
- 04 帝謂侍讀官周執羔等曰朕雖無大過豈無小失卿等不聞有所規諫恐思慮有所未至賴卿等裨益執羔等曰陛下聖明事無過舉帝曰卿等若只備位非所望於卿等又曰卿有所言朕未嘗不行朕有過失卿當直言有司過失亦當言之 ③
- 05 新除吏部尙書陳俊卿入對言銓綜事有成法臣固當謹守第愚淺之見或有不及望陛下時警敕之蓋君臣之分雖嚴而上下之情不可不通帝曰卿言是也朕或有過卿亦宜盡言俊卿奏自古惟唐太宗能導人使諫所以致貞觀之治今陛下導臣使諫臣敢不奉詔帝曰朕每讀太宗事未嘗不慕之若德宗之忌克不樂受言亦未嘗不鄙之也 ①
- 06 鎮江軍帥戚方刻剝役使軍士嗟怨言者及 ③

- 者及之陳俊卿奏外議內臣中有主方者帝曰朕亦聞之方罪固不可貸亦當併治左右素主方者以警其餘即詔罷方而以內侍陳瑤李宗回付大理究其賄狀獄成陳瑤決配循州李宗回等降罰有差於是詔戒兵將官毋交結內侍公行苞苴自今有違戾必罰無赦
- 50 宋 孝宗 帝謂輔臣曰無逸一篇享國久長皆本於寅畏朕近日取尙書中所載敬天事編爲兩圖朝夕觀覽以自警省名之曰敬天圖虞允文曰古人作無逸圖猶誇大其事陛下盡圖書中所載敬天事又遠過之惟聖人盡躬行之實敬畏不已必有明效大驗帝曰卿言誠然
- 51 宋 孝宗 二月立皇子恭王惇爲皇太子尋以王十朋陳良翰爲太子詹事劉焯國子司業太子侍讀先是帝謂輔臣曰古人以教子爲重其事備見於文王世子須當多置僚屬博選忠良使左右前後罔匪正人不然一薛居州亦無益也胡銓請飭太子賓僚勸講帝曰三代長且久者由輔導太子得人所致末世國祚不永皆由輔導不得其人
- 52 宋 孝宗 帝又嘗諭輔臣曰朕於機務之暇惟好讀書觀前古之興衰考當時之得失善者從之不善者以爲戒每見叔世之君所爲不善使人汗下幾代其羞且如唐季諸君以破朋黨去宦官爲難以朕思之殊不難也凡事只舉偏補弊防微杜漸銷患於冥冥若必待顯著而後治之則費力矣又曰自古人主讀書少有知道知之亦罕能行之且如與人不求備檢身若不及二句人君豈不知自是不能行甚者但作歌詩如隋陳之君竟亦何補唐德宗豈不知書然所行不至陸贄論諫諍復不已者正欲德宗知而行之如魏徵於太宗則語言不甚諍復且當德宗禍亂果何時而與陸贄論事皆使中人傳旨夫事有是非當面反覆詰難猶恐未盡中人傳旨又安能盡朕每事以太宗爲法以德宗爲戒
- 53 宋 孝宗 帝謂執政曰若要革弊當從宮禁始龔茂良曰聞之故老言仁宗嘗以南海沒入番商大珠賜溫成皇后時爲貴妃以充首飾戚里靡然效之京城珠價至數十倍仁宗聞其事因禁中內宴望見貴妃首飾不復回顧曰滿頭白紛紛豈無忌諱貴妃皇恐易去之仁宗大喜命剪牡丹遍賜妃嬪不數日聞京城珠價頓減帝喜曰此事誠當始於宮禁
- 54 宋 孝宗 十月太上崩帝號慟擗踊踰二日不進膳謂王淮等曰晉孝武魏孝文實行三年喪服何
- 之陳俊卿奏外議內臣中有主方者帝曰朕亦聞之方罪固不可貸亦當併治左右素主方者以警其餘即詔罷方而以內侍陳瑤李宗回付大理究其賄狀獄成陳瑤決配循州李宗回等降罰有差於是詔戒兵將官毋交結內侍公行苞苴自今有違戾必罰無赦
- 07 帝謂輔臣曰無逸一篇享國久長皆本於寅畏朕近日取尙書中所載敬天事編爲兩圖朝夕觀覽以自警省名之曰敬天圖虞允文曰古人作無逸圖猶誇大其事陛下盡圖書中所載敬天事又遠過之惟聖人盡躬行之實敬畏不已必有明效大驗帝曰卿言誠然
- 08 立皇子恭王惇爲皇太子帝謂輔臣曰古人以教子爲重其事備見於文王世子須當多置僚屬博選忠良使左右前後罔匪正人不然一薛居州亦無益也胡銓請飭太子賓僚勸講帝曰三代長且久者由輔導太子得人所致末世國祚不永皆由輔導不得其人
- 09 帝又嘗諭輔臣曰朕於機務之暇惟好讀書觀前古之興衰考當時之得失善者從之不善者以爲戒每見叔世之君所爲不善使人汗下幾代其羞且如唐季諸君以破朋黨去宦官爲難以朕思之殊不難也凡事只舉偏補弊防微杜漸銷患於冥冥若必待顯著而後治之則費力矣又曰自古人主讀書少有知道知之亦罕能行之且如與人不求備檢身若不及二句人君豈不知自是不能行甚者但作歌詩如隋陳之君竟亦何補唐德宗豈不知書然所行不至陸贄論諫諍復不已者正欲德宗知而行之如魏徵於太宗則語言不甚諍復且當德宗禍亂果何時而與陸贄論事皆使中人傳旨夫事有是非當面反覆詰難猶恐未盡中人傳旨又安能盡朕每事以太宗爲法以德宗爲戒
- 10 帝謂執政曰若要革弊當從宮禁始龔茂良曰聞之故老言仁宗嘗以南海沒入番商大珠賜溫成皇后時爲貴妃以充首飾戚里靡然效之京城珠價至數十倍仁宗聞其事因禁中內宴望見貴妃首飾不復回顧曰滿頭白紛紛豈無忌諱貴妃皇恐易去之仁宗大喜命剪牡丹遍賜妃嬪不數日聞京城珠價頓減帝喜曰此事誠當始於宮禁
- 11 太上崩帝號慟擗踊踰二日不進膳謂王淮等曰晉孝武魏孝文實行三年喪服何妨聽

- 妨聽政准對曰晉武雖有此意後來在宮中止用深衣練冠帝曰當時羣臣不能將順耳自我作古何害准曰御殿之時人主衰經羣臣吉服可乎帝曰自有等降乃出內批曰大行太上皇帝奄棄至養朕當衰服三年羣臣自遵易月之令百官五上表請帝還內聽政不許至十二月辛丑禪祭百官釋服羣臣三上表請御殿聽政不許○帝在位二十七年享年六十八
- 55 宋 理宗 理宗皇帝諱昀宗室希廬趾子太祖十世孫也嘉靖十四年寧宗以國本未立選太祖十世孫年十五以上者教育如高宗擇普安恩平故事帝在選中繼命爲群州防禦使帝性疑重寡言潔修好學每朝參待漏或多笑語帝獨儼然出入殿庭矩度有常見者欽容十七年八月寧宗不豫丞相史彌遠稱詔以帝爲皇子閏八月寧宗崩遂即皇帝位
- 56 宋 理宗 寶慶元年程秘進讀三朝寶訓奏曰藝祖皇帝受禪之初與三軍約不許殺戮一人自後聖聖相承守爲法帝曰然祖宗以仁立國朕當以仁守之因詔曰朕初纂丕圖亟奉慈訓既御經筵日親羣儒深念進德立治之本實由典學朝夕罔敢怠忽尙賴諸賢悉心啓迪母有所隱朕當垂聽益加自勉即令學士院明諭朕意
- 57 宋 理宗 二月朔雨雪朱著王暨進讀高宗寶訓至孝德卷終著奏高宗當興艱難之初欽事慈寧皇太后始終極至願陛下以高宗爲法帝嘉納忽愀然曰雪作非時朕終夜爲之不安當益恐懼脩德凡有關失無忘忠告著又進讀至周公戒成王惟在知稼穡艱難帝曰朕近寫無逸一篇揭爲四圖置之座右以便觀省念茲在茲不忘艱難
- 58 宋 理宗 喬行簡進讀高宗寶訓謹名器篇至祖宗朝教坊官有求爲郡者太祖以唐莊宗爲鑿不與帝曰用伶人爲郡守非獨輕襲名器亦必爲民害行簡奏乞謹守祖宗法度則名器自不濫帝曰祖宗法度自是精密豈容不守
- 59 宋 理宗 紹定三年侍講范楷進講易豐卦因奏曰當豐盛之時聖人於諸爻有壅蔽不明之憂帝首肯良久乃曰豐亨盛大之時侈心易生其後遂至徇情肆欲窮奢極靡與秦皇漢武禍亂將作而不自知此不可不戒也
- 60 宋 理宗 淳祐元年追封周敦頤汝南伯張載鄆伯鄭顥河南伯程頤伊陽伯朱熹徽國公並從祀孔子廟廷詔曰朕惟孔子之道自孟軻後不得其傳至我朝周敦頤張載鄭顥程頤真見
- 政准對曰晉武雖有此意後來在宮中止用深衣練冠帝曰當時羣臣不能將順耳自我作古何害准曰御殿之時人主衰經羣臣吉服可乎帝曰自有等降乃出內批曰大行太上皇帝奄棄至養朕當衰服三年羣臣自遵易月之令百官五上表請帝還內聽政不許至禪祭百官釋服羣臣三上表請御殿聽政不許在位二十七年享年六十八
- 01 理宗諱昀宗室希廬趾子太祖十世孫 ②
- 02 程秘進讀三朝寶訓奏曰藝祖皇帝受禪之初與三軍約不許殺戮一人自後聖聖相承守爲法帝曰然祖宗以仁立國朕當以仁守之因詔曰朕初纂丕圖亟奉慈訓既御經筵日親羣儒深念進德立治之本實由典學朝夕罔敢怠忽尙賴諸賢悉心啓迪母有所隱朕當垂聽益加自勉即令學士院明諭朕意 ③
- 03 二月朔雨雪朱著王暨進讀高宗寶訓至孝德卷終著奏高宗當興艱難之初欽事慈寧皇太后始終極至願陛下以高宗爲法帝嘉納忽愀然曰雪作非時朕終夜爲之不安當益恐懼脩德凡有關失無忘忠告著又進讀至周公戒成王惟在知稼穡艱難帝曰朕近寫無逸一篇揭爲四圖置之座右以便觀省念茲在茲不忘艱難 ①
- 04 喬行簡進讀高宗寶訓謹名器篇至祖宗朝教坊官有求爲郡者太祖以唐莊宗爲鑿不與帝曰用伶人爲郡守非獨輕襲名器亦必爲民害行簡奏乞謹守祖宗法度則名器自不濫帝曰祖宗法度自是精密豈容不守 ①
- 05 侍講范楷進講易豐卦因奏曰當豐盛之時聖人於諸爻有壅蔽不明之憂帝首肯良久乃曰豐亨盛大之時侈心易生其後遂至徇情肆欲窮奢極靡與秦皇漢武禍亂將作而不自知此不可不戒也 ③
- 06 追封周敦頤汝南伯張載鄆伯鄭顥河南伯程頤伊陽伯朱熹徽國公並從祀孔子廟廷詔曰朕惟孔子之道自孟軻後不得其傳至我朝周敦頤張載鄭顥程頤真見實踐深探 ③

- 實踐深探聖域千載絕學始有指歸中興以來又得朱熹精思明辨表裏混融使大學論孟中庸之書本末洞徹孔子之道益以大明于世朕每觀五臣論著啓沃良多今視學有日其令學官列諸從祀以示崇獎之意又以王安石謂天命不足畏祖宗不足法人言不足恤為萬世人豈宜從祀孔子其黜之帝謁孔子遂御崇化堂命祭主趙霽講禮記大學篇監學官各進一秩諸生推恩賜帛有差以紹定三年所製伏羲堯舜禹湯文武周孔顏曾子思孟子道統十三贊就賜國子監宣示諸生復親書朱熹白鹿洞學規賜焉
- 61 宋 理宗 十一年帝諭輔臣曰近日內引丞相朕因及祖宗家法之懿者數條如敬天愛民克己節儉不罪言者皆漢唐所不及朕謂不必遠稽前代只近法祖宗足矣又曰治天下之道無他惟順人心而已我朝以仁厚立國雖強不如秦富不如隋惟知敬以事天寬以愛民儉以足用平時之所以恪守家法者在此○帝崩在位四十年享年六十一
- 62 金 世宗 金主世宗諱雍姓完顏氏太祖阿骨打孫睿宗訛里朵子也初名烏祿體麟奇偉美須髯長過其腹胸間有黑子七如北斗形性仁孝沉靜明達衆心歸之以宗室子留守東京時海陵南伐天下騷動爲衆所推戴遂即位
- 63 金 世宗 金主謂宰執曰朕即位未半年可行之事甚多近日全無敷奏朕深居九重正賴卿等贊襄各思所長以聞朕豈有倦怠又曰比聞外議奏事甚難朕於可行者未嘗不從自今敷奏無有隱朕固樂聞之又曰卿等當參民間利害及時事之可否以時敷奏不可公餘輒從自便優游而已又曰臣民上書者多勅尙書省詳閱而不即具奏天下將謂朕徒受其言而不行也其亟條具以聞
- 64 金 世宗 詔減御膳及宮中食物之半因諭尙食局使曰太官之食皆民脂膏日者品味太多不可徧舉徒爲虛費自今止進數味而已他日又謂宰臣曰朕年來惟以省約爲務常膳止四五味已厭飫之比初即位十減七八宰臣曰天子自有定制不同餘人金主曰天子亦人耳枉費安用
- 65 金 世宗 詔第職官廉能污濫不職各爲三等而黜陟之因謂宰臣曰朝官當慎選其人庶可激勵其餘若不當則啓覬覦之心卿等必知人才優劣舉實才用之又曰海陵不辨人才優劣惟徇己欲多所升擢朕即位以來以此爲戒止取實才用之近聞蠡州同知刺移延壽在
- 聖域千載絕學始有指歸中興以來又得朱熹精思明辨表裏混融使大學論孟中庸之書本末洞徹孔子之道益以大明于世朕每觀五臣論著啓沃良多今視學有日其令學官列諸從祀以示崇獎之意又以王安石謂天命不足畏祖宗不足法人言不足恤爲萬世人豈宜從祀孔子其黜之帝謁孔子遂御崇化堂命祭主趙霽講禮記大學篇監學官各進一秩諸生推恩賜帛有差以紹定三年所製伏羲堯舜禹湯文武周孔顏曾子思孟子道統十三贊就賜國子監宣示諸生復親書朱熹白鹿洞學規賜焉
- 07 帝諭輔臣曰近日內引丞相朕因及祖宗家法之懿者數條如敬天愛民克己節儉不罪言者皆漢唐所不及朕謂不必遠稽前代只近法祖宗足矣又曰治天下之道無他惟順人心而已我朝以仁厚立國雖強不如秦富不如隋惟知敬以事天寬以愛民儉以足用平時之所以恪守家法者在此在位四十年享年六十一
- 01 世宗諱雍姓完顏氏太祖阿骨打孫睿宗訛里朵子
- 02 金主謂宰執曰朕即位未半年可行之事甚多近日全無敷奏朕深居九重正賴卿等贊襄各思所長以聞朕豈有倦怠又曰比聞外議奏事甚難朕於可行者未嘗不從自今敷奏無有隱朕固樂聞之又曰卿等當參民間利害及時事之可否以時敷奏不可公餘輒從自便優游而已又曰臣民上書者多勅尙書省詳閱而不即具奏天下將謂朕徒受其言而不行也其亟條具以聞
- 03 詔減御膳及宮中食物之半因諭尙食局使曰太官之食皆民脂膏日者品味太多不可徧舉徒爲虛費自今止進數味而已他日又謂宰臣曰朕年來惟以省約爲務常膳止四五味已厭飫之比初即位十減七八宰臣曰天子自有定制不同餘人金主曰天子亦人耳枉費安用
- 04 詔第職官廉能污濫不職各爲三等而黜陟之因謂宰臣曰朝官當慎選其人庶可激勵其餘若不當則啓覬覦之心卿等必知人才優劣舉實才用之又曰海陵不辨人才優劣惟徇己欲多所升擢朕即位以來以此爲戒止取實才用之近聞蠡州同知刺移延壽在

		官汪濫詢其出身乃正隆時鷹房子如鷹房廚人之類可典城牧民耶自今如此局分不得授以臨民職任	官汪濫詢其出身乃正隆時鷹房子如鷹房廚人之類可典城牧民耶自今如此局分不得授以臨民職任	
66	金 世宗	八年金主謂宰臣曰朕治天下方與卿等共之事有不可各當面陳以輔朕之不逮慎毋阿順取容卿等致位公相正道揚名之時苟或偷安自便雖爲今日之幸後世以爲何如	金主謂宰臣曰朕治天下方與卿等共之事有不可各當面陳以輔朕之不逮慎毋阿順取容卿等致位公相正道揚名之時苟或偷安自便雖爲今日之幸後世以爲何如	③
67	金 世宗	嘗謂秘書監移刺子敬等曰昔唐虞之時未有華飾漢惟孝文務爲純儉朕於宮室惟恐過度其或興脩即損宮人歲費以充之今亦不復營建矣如宴飲之事近惟太子生日及歲元飲酒往者亦止上元中秋飲之亦未嘗至醉至於佛法尤所未信梁武帝爲同泰寺奴遂道宗以民戶賜僧寺復加以三公之官其惑深矣遂詔戶工兩部自今宮中之飾勿用黃金	嘗謂秘書監移刺子敬等曰昔唐虞之時未有華飾漢惟孝文務爲純儉朕於宮室惟恐過度其或興脩即損宮人歲費以充之今亦不復營建矣如宴飲之事近惟太子生日及歲元飲酒往者亦止上元中秋飲之亦未嘗至醉至於佛法尤所未信梁武帝爲同泰寺奴遂道宗以民戶賜僧寺復加以三公之官其惑深矣遂詔戶工兩部自今宮中之飾勿用黃金	①
68	金 世宗	九年正月金主與宣徽使敬嗣輝等論古今事因曰亡遼日屠食羊三百豈能盡用徒傷生耳朕雖處至尊每當食常思貧民飢餒猶在已也彼身爲惡而口祈福何益之有如海陵以張仲軻爲諫議大夫何以得聞忠言朕與大臣論議一事非正不言卿等不以正對豈人臣之道也	金主與宣徽使敬嗣輝等論古今事因曰亡遼日屠食羊三百豈能盡用徒傷生耳朕雖處至尊每當食常思貧民飢餒猶在已也彼身爲惡而口祈福何益之有如海陵以張仲軻爲諫議大夫何以得聞忠言朕與大臣論議一事非正不言卿等不以正對豈人臣之道也	③
69	金 世宗	又曰朕已行之事卿等以爲成命不可復更但承順而已一無執奏且卿等凡有奏何嘗不從自今朕旨雖出宜審而行有未便者即奏改之或在下位有言尙書省所行未便亦當從而改之母拒而不從	又曰朕已行之事卿等以爲成命不可復更但承順而已一無執奏且卿等凡有奏何嘗不從自今朕旨雖出宜審而行有未便者即奏改之或在下位有言尙書省所行未便亦當從而改之母拒而不從	①
70	金 世宗	金主幸東宮謂太子曰吾兒在儲貳之位朕爲汝措天下當無復有經營之事汝惟無忘祖宗純厚之風以勤脩道德爲孝明信賞罰爲治而已昔唐太宗謂其子高宗曰吾伐高麗不克終汝可繼之如此之事朕不以遺汝如遼之海濱王以國人愛其子嫉而殺之此何理也子爲衆愛愈爲美事所爲若此安有不亡唐太宗又嘗謂高宗曰爾於李勣無恩今以事出之我死宜即授以僕射彼必致死力矣君人者焉用僞爲受恩於父安有忘報於子者乎朕御臣下惟以誠實耳	金主幸東宮謂太子曰吾兒在儲貳之位朕爲汝措天下當無復有經營之事汝惟無忘祖宗純厚之風以勤脩道德爲孝明信賞罰爲治而已昔唐太宗謂其子高宗曰吾伐高麗不克終汝可繼之如此之事朕不以遺汝如遼之海濱王以國人愛其子嫉而殺之此何理也子爲衆愛愈爲美事所爲若此安有不亡唐太宗又嘗謂高宗曰爾於李勣無恩今以事出之我死宜即授以僕射彼必致死力矣君人者焉用僞爲受恩於父安有忘報於子者乎朕御臣下惟以誠實耳	①
71	金 世宗	尙書省奏鄧州民范三毆殺人當死而親老無侍金主曰在醜不爭謂之孝孝然後能養斯人以一朝之忿忘其身而有事親之心乎可論如法其親官與養濟	尙書省奏鄧州民范三毆殺人當死而親老無侍金主曰在醜不爭謂之孝孝然後能養斯人以一朝之忿忘其身而有事親之心乎可論如法其親官與養濟	①
72	金 世宗	十四年金主謂宰臣曰聞愚民祈福多建佛寺雖已條禁尙多犯者宜申約束無令徒費財用朕於釋老早年亦頗惑之旋悟其非且	金主謂宰臣曰聞愚民祈福多建佛寺雖已條禁尙多犯者宜申約束無令徒費財用朕於釋老早年亦頗惑之旋悟其非且	③

- 上天立君使之治民若盤樂怠荒欲以僥倖祈福難矣果能愛養下民上當天心福必報之又曰人皆以奉道崇佛設齋讀經為福朕使百姓無冤天下安樂不勝於彼乎爾等居輔相之任誠能匡益國家使百姓蒙利不惟身享其報亦將施及子孫矣
- 73 金 世宗 尙書省擬同知永寧軍節度使阿可為刺史金主曰阿可年幼於事未練授佐貳可也平章政事唐括安禮奏曰臣等以阿可宗室故擬是職金主曰郡守係千里休戚安可不擇人而私其親邪若以親親之恩賜與雖厚無害於政使之治邪而非其才一境何賴焉
- 74 金 世宗 又曰朕雖年老聞善不厭孔子云見善如不及見不善如探湯大哉言乎○嘗謂宰臣曰朕方前古明君固不可及至於不納近臣讒言不受戚里私謁亦無愧矣朕嘗自思豈能無過所患過而不改過而能改庶幾無咎省朕之過頗喜興土木之工自今不復作矣○金主在位二十九年壽六十有七
- 75 元 世祖 世祖皇帝諱忽必烈姓奇渥溫氏蒙古部人太祖鐵木真之孫睿宗拖雷第四子也性仁明英睿事太后至孝尤善撫下在潛邸思大有為於天下延藩府舊臣及四方文學之士問以治道憲宗即位同母弟惟帝最長且賢盡屬以漠南漢地軍國庶務憲宗崩帝以屢立大功為諸王大臣所推戴即皇帝位
- 76 元 世祖 初帝聞竇默賢召見問以治道默首舉三綱五常為對帝曰人道之端莫大於此失此無以立於世矣又遣使聘王鶚及至迎勞召對進講孝經書易及齊家治國之道古今事物之變每夜分乃罷帝曰我雖未能即行汝言安知異日不能行耶
- 77 元 世祖 詔十路宣撫司官勸農桑抑游惰禮高年問民疾苦舉文學才識可以從政及茂才異等列名上聞以聽擢用其職官汙濫及民不孝悌者量輕重議罰
- 78 元 世祖 十六年二月詔湖南行省於戎軍還塗每四五十里立安樂堂疾者醫之饑者廩之死者藁葬之官給其需
- 79 元 世祖 二十三年或告漢人毆傷國人及太府監屬盧甲盜剪官布帝怒命殺之以徵衆董文忠言今刑曹於罪囚當死者已有服辭猶必詳讞豈可因人一言遽加重刑宜付有司閱實以俟後命乃遣文忠及近臣突滿分覈之皆得誣狀遂詔原之因責侍臣曰方朕怒時卿曹皆不敢言非文忠開悟朕心則殺二無辜之人賜文忠金尊曰用旌卿直
- 君使之治民若盤樂怠荒欲以僥倖祈福難矣果能愛養下民上當天心福必報之又曰人皆以奉道崇佛設齋讀經為福朕使百姓無冤天下安樂不勝於彼乎爾等居輔相之任誠能匡益國家使百姓蒙利不惟身享其報亦將施及子孫矣
- 12 尙書省擬同知永寧軍節度使阿可為刺史 ① 金主曰阿可年幼於事未練授佐貳可也平章政事唐括安禮奏曰臣等以阿可宗室故擬是職金主曰郡守係千里休戚安可不擇人而私其親邪若以親親之恩賜與雖厚無害於政使之治邪而非其才一境何賴焉
- 13 又曰朕雖年老聞善不厭孔子云見善如不及見不善如探湯大哉言乎嘗謂宰臣曰朕方前古明君固不可及至於不納近臣讒言不受戚里私謁亦無愧矣朕嘗自思豈能無過所患過而不改過而能改庶幾無咎省朕之過頗喜興土木之工自今不復作矣在位二十九年壽六十有七
- 01 世祖諱忽必烈姓奇渥溫氏蒙古部人太祖鐵木真之孫睿宗拖雷第四子 ②
- 02 初帝聞竇默賢召見問以治道默首舉三綱五常為對帝曰人道之端莫大於此失此無以立於世矣又遣使聘王鶚及至迎勞召對進講孝經書易及齊家治國之道古今事物之變每夜分乃罷帝曰我雖未能即行汝言安知異日不能行耶 ①
- 03 詔十路宣撫司官勸農桑抑游惰禮高年問民疾苦舉文學才識可以從政及茂才異等列名上聞以聽擢用其職官汙濫及民不孝悌者量輕重議罰 ①
- 04 詔湖南行省於戎軍還塗每四五十里立安樂堂疾者醫之饑者廩之死者藁葬之官給其需 ③
- 05 或告漢人毆傷國人及太府監屬盧甲盜剪官布帝怒命殺之以徵衆董文忠言今刑曹於罪囚當死者已有服辭猶必詳讞豈可因人一言遽加重刑宜付有司閱實以俟後命乃遣文忠及近臣突滿分覈之皆得誣狀遂詔原之因責侍臣曰方朕怒時卿曹皆不敢言非文忠開悟朕心則殺二無辜之人賜文忠金尊曰用旌卿直 ③

- | | | | | | |
|----|------|--|----|--|---|
| 80 | 元 世祖 | 帝以不忽木論事引義正大皆古今治要因諭之曰太祖有言人主理天下如右手持物必資左手承之然後能固卿實朕之左手也每拊髀歎曰恨卿生晚不得早聞此言然亦吾子孫之福因遣以璧曰他日持此以見朕也 | 06 | 帝以不忽木論事引義正大皆古今治要因諭之曰太祖有言人主理天下如右手持物必資左手承之然後能固卿實朕之左手也每拊髀歎曰恨卿生晚不得早聞此言然吾子孫之福因遣以璧曰他日持此以見朕也 | ③ |
| 81 | 元 世祖 | 二十五年四月尚書省臣言近以江淮饑命行省賑之吏與富民因緣爲奸多不及於貧者杭蘇湖秀四州復大水民鬻妻女易食帝聞之卽命輟上供米二十萬石審其貧者賑之○帝在位三十五年享年八十諡曰聖德神功文武皇帝廟號世祖國語尊稱曰薛禪皇帝 | 07 | 尚書省臣言今杭蘇湖秀四州大水民鬻妻女易食帝聞卽命輟上供米二十萬石審其貧者賑之在位三十五年享年八十 | ② |
| 82 | 元 仁宗 | 仁宗皇帝諱愛育黎拔力八達順宗次子武宗之弟也母曰興聖太后弘吉刺氏成宗崩帝侍太后自懷州入燕聞丞相阿忽台等謀不軌率衛士執之伏誅衆欲推正大位帝曰惡人潛結宮壺搆亂我家故誅之豈欲覬望神器耶懷寧王吾兄也正位爲宜乃遣使迎懷寧王歸卽位是爲武宗武宗立帝爲皇太弟武宗崩帝卽位 | 01 | 仁宗諱愛育黎拔力八達順宗次子武宗之弟 | ② |
| 83 | 元 仁宗 | 詹事院臣啓金州獻瑟瑟洞請遣使采之帝曰所寶惟賢瑟瑟何用焉若此者後勿復聞先是近侍言賈人有售美珠者帝曰吾服御雅不喜飾以珠璣生民膏血不可輕耗汝等當進賢才以恭儉愛人相規不可以奢靡蠹財相導言者慚而退淮東宣慰使撒都獻玉觀音七寶帽頂寶帶寶鞍卻之戒諭如初帝諭左右曰回回以寶玉鬻於官朕思此物何足爲寶唯善人乃可爲寶善人用則百姓安茲國家所宜寶也 | 02 | 詹事院臣啓金州獻瑟瑟洞請遣使采之帝曰所寶惟賢瑟瑟何用焉若此者後勿復聞先是近侍言賈人有售美珠者帝曰吾服御雅不喜飾以珠璣生民膏血不可輕耗汝等當進賢才以恭儉愛人相規不可以奢靡蠹財相導言者慚而退淮東宣慰使撒都獻玉觀音七寶帽頂寶帶寶鞍卻之戒諭如初帝諭左右曰回回以寶玉鬻於官朕思此物何足爲寶唯善人乃可爲寶善人用則百姓安茲國家所宜寶也 | ① |
| 84 | 元 仁宗 | 十一月以星變赦天下減免各路差稅有差左丞相合散等言彗星之異由臣等不才所致願避賢路帝曰此朕之愆豈卿等所致其復乃職苟政有過差勿憚於改凡可以安百姓者當悉言之庶上下交脩天變可弭也 | 03 | 帝諭左右曰回回以寶玉鬻於官朕思此物何足爲寶唯善人乃可爲寶善人用則百姓安茲國家所宜寶也 | ① |
| 85 | 元 仁宗 | 十一月以星變赦天下減免各路差稅有差左丞相合散等言彗星之異由臣等不才所致願避賢路帝曰此朕之愆豈卿等所致其復乃職苟政有過差勿憚於改凡可以安百姓者當悉言之庶上下交脩天變可弭也 | 04 | 左丞相合散等言彗星之異由臣等不才所致願避賢路帝曰此朕之愆豈卿等所致其復乃職苟政有過差勿憚於改凡可以安百姓者當悉言之庶上下交脩天變可弭也 | ③ |
| 86 | 元 仁宗 | 帝嘗出見衛士有弊衣者駐馬問之對曰戍守邊鎮餘十五年以故貧耳帝曰此輩久勞於外留守臣未嘗以聞非朕親見何由知之自今有類此者必言於朕因命賜之錢帛 | 05 | 帝嘗出見衛士有弊衣者駐馬問之對曰戍守邊鎮餘十五年以故貧耳帝曰此輩久勞於外留守臣未嘗以聞非朕親見何由知之自今有類此者必言於朕因命賜之錢帛 | ① |
| 87 | 元 仁宗 | 大司農買住等進司農丞苗好謙所撰栽桑圖說帝曰農桑衣食之本此圖甚善命刊印千帙散之民間 | 06 | 大司農買住等進司農丞苗好謙所撰栽桑圖說帝曰農桑衣食之本此圖甚善命刊印千帙散之民間 | ① |
| 88 | 元 仁宗 | 六年正月帝御嘉禧殿謂扎魯忽赤買問曰扎魯忽赤人命所繫其詳閱獄辭事無大小必謀諸同僚疑不能決者與省臺臣集議以聞又顧謂侍臣曰卿等以朕居帝位爲安邪 | 07 | 帝御嘉禧殿謂扎魯忽赤買問曰扎魯忽赤人命所繫其詳閱獄辭事無大小必謀諸同僚疑不能決者與省臺臣集議以聞又顧謂侍臣曰卿等以朕居帝位爲安邪朕惟太祖 | ② |

朕惟太祖創業艱難世祖混一區宇兢業守成恒懼不能當天心繩祖武使萬邦百姓樂得其所朕念慮在茲卿等固不知也○帝在位十年享年三十六諡曰聖文欽孝皇帝國語曰普顏篤皇帝廟號仁宗

創業艱難世祖混一區宇兢業守成恒懼不能當天心繩祖武使萬邦百姓樂得其所朕念慮在茲卿等固不知也在位十年享年三十六

合計	3朝 11人物 105條	3朝 10人物 88條
----	--------------	-------------

이상의 「歷代明鑑」卷4와 「歷代君鑑」에 수록된 본문의 對比를 바탕으로 「歷代明鑑」의 撰集에 적용된 類型別 撰集樣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轉載’의 類型

‘轉載’는 底本인 「歷代君鑑」에 수록된 本文의 內容을 전혀 加減없이 그대로 옮긴 類型이다.

예컨대 「歷代明鑑」卷4에 수록되어 있는 <宋太祖(05)>條의 “帝躬履儉約衣澣濯之衣乘輿服用皆尙質素寢殿設青布綠葦簾宮闈帘幕無文采之飾嘗出麻屨布裳賜左右曰此我舊所服用也開封尹光義因侍宴禁中從容言陛下服用太草草帝正色曰爾不記居夾馬營中時耶”의 內容은 底本의 內容에서 어떤 字句의 變化나 差異도 없이 있는 內容을 그대로 옮겨온 類型이다.

「歷代明鑑」卷4에 수록된 ‘轉載’의 類型은 <宋太祖(05)> · <宋太宗(03)> · <宋太宗(04)> · <宋太宗(05)> · <宋太宗(06)> · <宋太宗(07)> · <宋太宗(08)> · <宋眞宗(03)> · <宋仁宗(10)> · <宋仁宗(12)> · <宋仁宗(13)> · <宋神宗(02)> · <宋孝宗(02)> · <宋孝宗(05)> · <宋孝宗(07)> · <宋孝宗(09)> · <宋孝宗(10)> · <宋理宗(03)> · <宋理宗(04)> · <金世宗(02)> · <金世宗(03)> · <金世宗(04)> · <金世宗(06)> · <金世宗(08)> · <金世宗(09)> · <金世宗(10)> · <金世宗(12)> · <元世祖(02)> · <元世祖(03)> · <元仁宗(02)> · <元仁宗(03)> · <元仁宗(05)> · <元仁宗(06)> 등 포함 33條目이다.

4.2 ‘撮其切要’의 類型

‘撮其切要’는 底本인 「歷代君鑑」에 수록된 本文의 內容 중에서 重要하거나 要緊한 것만을 撮錄한 類型이다.

예컨대 「歷代明鑑」卷4에 수록되어 있는 <宋太宗(01)>條의 “太宗諱炘初名光義即位之宣祖第三子”의 內容은 底本의 內容에서 ‘皇帝’, ‘匡又改賜’, ‘即位之二年改今諱’, ‘帝幼不群與他兒戲皆畏服及長隆準龍顏望之知爲大人儼如也性嗜學宣祖總兵淮南破州縣財物悉不取第求古書遺帝恒飭勵之帝由是工文業多藝能開寶九年冬十月即位大赦天下’ 등을 생략하고 중요한 內容만을 撮錄한

類型이다.

「歷代明鑑」卷4에 수록된 ‘轉載’의 類型은 <宋太祖(01)> · <宋太祖(02)> · <宋太祖(03)> · <宋太祖(07)> · <宋太祖(08)> · <宋太宗(11)> · <宋眞宗(01)> · <宋眞宗(02)> · <宋仁宗(01)> · <宋仁宗(03)> · <宋仁宗(08)> · <宋仁宗(11)> · <宋仁宗(14)> · <宋仁宗(15)> · <宋神宗(01)> · <宋神宗(05)> · <宋孝宗(01)> · <宋孝宗(08)> · <宋理宗(01)> · <金世宗(01)> · <元世祖(01)> · <元世祖(07)> · <元仁宗(01)> · <元仁宗(07)> 등 도합 24條目이다.

4.3 ‘刪其繁蕪’의 類型

‘刪其繁蕪’는 底本인 「歷代君鑑」에 수록된 本文의 內容 중에서 煩雜하고 어지러운 것을 간략히 刪削한 類型이다.

예컨대 「歷代明鑑」卷4에 수록되어 있는 <宋仁宗(02)>條의 “幸南御莊觀刈麥聞民舍機杼聲召問之乃一貪婦也因賜以茶帛諭輔臣曰其勤如此而貪可無恤哉”의 내용은 저본의 내용에서 繁蕪한 ‘三年五月’만을 刪削한 類型이다.

「歷代明鑑」卷4에 수록된 ‘刪其繁蕪’의 類型은 <宋太祖(02)> · <宋太祖(06)> · <宋太宗(02)> · <宋太宗(09)> · <宋眞宗(04)> · <宋仁宗(02)> · <宋仁宗(05)> · <宋仁宗(06)> · <宋仁宗(07)> · <宋仁宗(09)> · <宋仁宗(16)> · <宋神宗(03)> · <宋神宗(04)> · <宋孝宗(03)> · <宋孝宗(04)> · <宋孝宗(06)> · <宋孝宗(113)> · <宋理宗(02)> · <宋理宗(05)> · <宋理宗(06)> · <宋理宗(07)> · <金世宗(05)> · <金世宗(07)> · <金世宗(11)> · <金世宗(13)> · <元世祖(04)> · <元世祖(05)> · <元世祖(06)> · <元仁宗(04)> 등 도합 29條目이다.

4.4 ‘去其全條’의 類型

‘去其全條’는 底本인 「歷代君鑑」에 수록된 本文의 全文을 除去한 類型이다.

예컨대 底本인 「歷代君鑑」의 <宋英宗>條에 수록되어 있는 “英宗皇帝諱曙濮安懿王允讓第十三子母曰仙遊縣君任氏四歲仁宗養於內寶元初豫王生乃歸濮邸帝天性篤孝好讀書不爲燕嬉 … 帝曰然文王刑于寡妻至于兄弟以御于家邦正謂此爾詔卒如卜請帝在位四年享年三十六” 등 1人物 17條의 내용이 모두 除去되고 「歷代明鑑」卷4에는 전혀 수록되지 않은 類型이다.

「歷代明鑑」卷4에서의 ‘去其全條’의 類型은 <宋英宗>의 1人物 17條目이다.

4.5 ‘添入新段’의 類型

‘添入新段’은 底本인 「歷代君鑑」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歷代明鑑」卷4에서는 原典으로부터

새로운 文段을 添入시킨 類型이다.

예컨대 『歷代明鑑』 卷4에 수록되어 있는 <宋仁宗(04)>條의 “帝謂輔臣曰朕每退朝凡天下之奏必親覽之呂夷簡曰若小事皆關聽覽恐非所以輔養聖神帝曰朕承先帝之託況以萬幾之重敢自泰乎又曰朕日膳不欲事珍味衣服多以縑繪爲之至屢經澣濯而宮人或以爲笑大官進膳有蟲在食器中朕掩而不言恐罪及有司也夷簡曰陛下孝以奉先儉以臨下雖古盛德何以加此帝曰此偶與卿等言之非欲聞於外嫌其近名爾”의 내용은 저본인 『歷代君鑑』의 <宋仁宗>條에는 수록내용이 없으나 撰集者들이 『續資治通鑑長編』의 <仁宗 明道 2年 12月 4(丙申)日>條의 文段²¹⁾을 새로이 添入시킨 類型이다.

『歷代明鑑』 卷4에 수록된 ‘添入新段’의 類型은 <宋太祖(04)>의 1條目이다.

이상과 같이 『歷代明鑑』 卷4에 수록된 3朝 10人 88條의 本文은 底本인 『歷代君鑑』을 바탕으로 33條目的 ‘轉載’, 24條目的 ‘撮其切要’, 29條目的 ‘刪其繁蕪’, 1人物 17條目的 ‘去其全條’, 그리고 1條目的 ‘添入新段’의 類型으로 釐正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歷代明鑑』은 人物의 選取에서부터 人物別 鑑戒의 內容에 이르기까지 朝鮮의 實情에 맞도록 釐正·重撰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 結 論

본 研究는 『歷代明鑑』에 收錄된 人物의 選聚類型과 『歷代明鑑』 卷4에 나타나는 類型別 撰集樣相을 중심으로 하여 『歷代明鑑』의 全般의 撰集樣相에 관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歷代明鑑』은 연산군 5년(1499) 12월 1일(병술)부터 洪貴達과 權健 및 成倪 등이 王命을 받들어 歷代의 君主·后妃·臣下들의 規範이 될 만한 言行으로 後世에 規戒될 수 있는 內容으로 撰集한 道합 27권 巨帙의 鑑戒書이다.

(2) 『歷代明鑑』은 <君鑑>·<后妃鑑>·<臣鑑>으로 편차되고 各 鑑別로 다시 ‘善可爲法’과 ‘惡可爲戒’로 세분되어 <君鑑>에 77인, <后妃鑑>에 44인, <臣鑑>에 199인 등 道합 320人物이 底本으로부터 ① 轉載되거나 ② 除去되거나 ③ 歷代 本史로부터 添入된 方法으로 選取·收錄된 것이다.

21) 李燾 編著, 『續資治通鑑長編』. 卷113. 宋. 仁宗. 明道 2(癸酉, 1033)年 12月 4(丙申)日條.

“丙申上謂輔臣曰每退朝凡天下之奏必親覽之呂夷簡曰若小事皆關聽覽恐非所以輔養聖神上曰朕承先帝之託況以萬幾之重敢自泰乎又曰朕日膳不欲事珍美衣服多以縑繪爲之至屢經澣濯而宮人或以爲笑大官進膳有蟲在食器中朕掩而不言恐罪及有司也夷簡曰陛下孝以奉先儉以臨下雖古盛德何以加此上曰此偶與卿等言之非欲聞於外嫌其近名爾”

(3) 「歷代明鑑」의 收錄人物은 底本으로부터 <君鑑>의 경우 ‘善可爲法’에는 13인이 除去되었으며, ‘惡可爲戒’에는 2인이 除去되고 3인이 添入되었으며, <臣鑑>의 경우 ‘善可爲法’에는 89인이 除去되고 9인이 添入되었으며, ‘惡可爲戒’에서는 34인이 除去되고 18인이 添入되어 <君鑑>과 <臣鑑>의 兩鑑에 걸쳐 道합 138인이 除去되고 30인이 添入되었다. <后妃鑑>의 경우 除去나 添入이 없이 모든 人物이 그대로 轉載되고 있어, 이는 아마도 底本人 「帝王后妃明鑑」이 朝鮮의 撰集인 關係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歷代明鑑」에 수록된 人物은 本朝 撰集의 「帝王后妃明鑑」에서는 그대로 轉載하고 中朝 撰集의 「歷代君鑑」과 「歷代臣鑑」에서는 除去와 添入을 가하여 朝鮮의 實情에 맞도록 選取된 것이 확실하다.

(4) 「歷代明鑑」 권4에 수록된 3朝 10人 88條目的 內容을 바탕으로 類型別 撰集樣相을 고찰한 결과, ① 底本の 內容을 전혀 加減없이 그대로 옮긴 ‘轉載’, ② 底本の 內容 중에서 重要하거나 要緊한 것만을 撮錄한 ‘撮其切要’, ③ 底本の 內容에서 煩雜하고 어지러운 것을 간략히 刪削한 ‘刪其繁蕪’, ④ 底本の 全文을 除去한 ‘去其全條’ 등의 方法도 사용되고 나아가 ⑤ 底本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原典으로부터 새로운 文段을 添入시킨 ‘添入新段’의 方法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歷代明鑑」 권4에 수록된 3朝 10人 88條目的 本文은 底本人 「歷代君鑑」을 바탕으로 33條目的 ‘轉載’, 24條目的 ‘撮其切要’, 29條目的 ‘刪其繁蕪’, 1人物 17條目的 ‘去其全條’, 그리고 1條目的 ‘添入新段’의 類型으로 釐正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類型別 撰集樣相은 朝鮮의 實情에 맞도록 釐正·重撰된 것일 뿐 아니라 「歷代明鑑」의 全般에 걸쳐 適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따라서 「歷代明鑑」에 수록된 人物의 選取와 「歷代明鑑」 권4에 수록된 類型別 撰集樣相을 통하여 볼 때, 「歷代明鑑」 <君鑑>·<后妃鑑>·<臣鑑> 등 全帙(27권)에 수록된 道합 320人物은 ① ‘轉載’와 ② ‘除去’ 및 ③ ‘添入’ 등의 方法으로 選取되었으며, 수록된 人物의 本文의 內容은 中朝의 「歷代君鑑」과 「歷代臣鑑」 및 朝鮮의 「帝王后妃明鑑」을 底本으로 ① ‘轉載’, ② ‘撮其切要’, ③ ‘刪其繁蕪’, ④ ‘去其全條’ 등의 方法을 비롯하여 나아가 原典인 歷代의 本史를 참고한 ⑤ ‘添入新段’의 方法으로 撰集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歷代明鑑」은 人物의 選取에서부터 人物別 鑑戒의 內容에 이르기까지 朝鮮의 實情에 맞도록 釐正·重撰된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金宗直 著. 『佔畢齋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中宗 15(1520), 校訂補板 後刷]. 『韓國文集叢刊』 第12冊 所收. 卷1. 序. ‘后妃明鑑序’條.
- 代宗 御撰. 『歷代君鑑』.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景泰 4(1453) 序].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한古朝50-110)>.
- 朴文烈. “大邱가톨릭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歷代明鑑』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70輯 (서울: 韓國書誌學會, 2017. 6). 39-64.
- 宣宗 御撰. 『歷代臣鑑』.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德 1(1426) 序]. <奎章閣所藏本>.
- 成倪 著. 『虛白堂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憲宗 8(1842)]. 『韓國文集叢刊』 第14冊 所收. 卷9. 題跋. ‘歷代明鑑跋’條.
- 崔恒 著. 『太虛亭文集』.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肅宗 33(1707)]. 『韓國文集叢刊』 第9冊 所收. 卷1. 序類. ‘后妃明鑑序’條.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成宗實錄> · <燕山君日記> · <中宗實錄>.
- 韓國古典翻譯院.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檢索.
-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3, 8-27.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序]. <光山金氏 禮安派宗家 所藏本, 寶物 第1019-1-5號>.
- 洪貴達 等撰. 『歷代明鑑』 卷1-4. 初鑄甲寅字本. [漢城]: [鑄字所], [燕山君 6(1500) 序]. <大邱가톨릭大學校中央圖書館所藏本>.
- 洪貴達 著. 『虛白亭文集』.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光海君 3(1611)]. 『韓國文集叢刊』 第14冊 所收. 卷2. 序. ‘歷代明鑑序’條.